

## 정서의 차원 분화를 통해서 본 정서 발달\*

장 해 진

김 영 근†

인제대학교

본 연구는 대표성을 가진 정서 단어의 분류를 통해 정서 차원의 분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연령의 증가에 따른 정서 발달이 어떠한지를 탐색한 연구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대표 정서 단어 도구를 사용하여 초등학생 24명, 중학생 24명, 고등학생 24명, 대학생 24명에게 유사한 의미끼리 분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단어에 내재된 차원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그 결과, 초등학생의 정서 차원은 1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쾌-불쾌'로 명명하였다. 중학생의 정서는 2차원으로 첫 번째 차원을 '쾌-불쾌', 두 번째 차원을 '활성화-비활성화'로 명명하였다. 고등학생의 정서는 3차원으로 발견되었으며, 첫 번째 차원을 '쾌-불쾌', 두 번째 차원을 '활성화-비활성화', 세 번째 차원을 '자기 지향-타인 지향'으로 해석되며, 이는 3차원으로 구성된 성인의 정서 차원과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대표 정서 단어에 내재된 차원의 분화를 통해 연령에 따른 정서 차원의 분화와 발달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명확하게 발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정서, 정서 단어, 정서 차원, 정서 분화, 정서 발달

\* 본 연구는 장해진(2019)의 박사학위논문을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 교신저자: 김영근,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50834)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Tel: 055-320-4024, E-mail: ykkim@inje.ac.kr

정서는 인간의 출생과 더불어 시작되어 일생 동안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사고와 행동의 바탕에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성숙한 변화가 일어나 초기 유아기에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부터 성인기에 도달할 때까지 상황에 따른 정서 경험과 표현이 분화하여 점차 정교화 해나간다고 할 수 있다. 정서라는 인간의 미묘한 심리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정서 연구에서는 정서가 무엇이고 어떤 정서가 존재하며 그것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쟁을 이어왔다. 논쟁의 핵심은 인간이 각기 다른 의미를 갖는 소수의 개별적인 기본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연속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Darwin(1872)은 전 세계에 걸친 사람들의 안면 표정에서 '기쁨', '행복', '공포', '슬픔' 등의 다양한 정서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정서를 몇 개의 구분되는 범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정서가 '쾌-불쾌', '활성화-비활성화'와 같은 두 개 이상의 연속적이고 다차원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대안적인 견해도 제시되었는데, Wundt(1907)는 다양한 종류의 정서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기보다 어떻게 정서가 다른 정서로 점진적인 발달을 하는지에 대해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Darwin과 Wundt 이래로 정서 연구자들은 기본 정서 혹은 연속적 차원의 개념으로써 정서의 구조를 살펴보기 시작함에 따라 기본 정서 모형과 정서 차원 모형의 두 가지 주요한 이론이 제시되었다. 기본 정서 이론에 따르면, 정서는 크게 기본 정서와 복합 정서로 구분되며 기본 정서가 소수로 존재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그 외 모든 정서를 복합 정서로 보고 있다(Lewis, Sullivan, Stanger, & Weiss, 1989).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여러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본 정서 및 복합 정서의 수와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기본 정서 가운데 그 일부로, Ekman(1973)은 '행복', '놀람', '슬픔', '공포', '분노', '혐오'를 포함하는 여섯 개의 정서를 제안

하였으며, Izard(1972)는 '즐거움', '흥미', '놀람', '혐오', '분노', '슬픔', '공포', '경멸', '죄책감', '수치심/수줍음'을 열 개의 기본 정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본 정서 구조는 두려움, 분노와 같이 연구들마다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특정 정서가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우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되는 견해가 있다. 첫째, 연구자마다 제시하는 기본 정서의 수와 종류가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기본 정서와 복합 정서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충분한 근거와 설득력이 없다. 기본 정서를 분류하는 기준 중 안면 표정이나 생리적 지표 등에서 특정 정서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뒷받침되는 근거가 없으므로 과대 추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각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기본 정서와 복합 정서 간에 중복되는 구성 요소로 인해 어떤 정서가 일차 정서인지 혹은 이차 정서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의미가 유사한 기본 정서일지라도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연관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료한 근거가 없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상황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정서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Carroll & Russell, 1996). 결국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개별 정서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정서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회성(回省)에 따라 적용되어 만들어질 뿐이다(James, 1950). 다시 말해, 개인의 심리 상태와 이에 대한 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개별 정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제약점이 뒤따른다. 이를테면, 공포가 유발되는 자극 대상이나 상황이 개인이 느끼는 강도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불안이나 절망으로 다가올 수 있듯이 개인마다 표현하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

한편, 정서는 강도와 상태에 따라 아주 약한 상태에서 아주 강한 상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개별 정서로 분류한다면 인간의 다양한 내적 상태를 정밀하게 구별하지 못한 채 오로지

하나의 정서로만 분류할 뿐이다(이수정, 유재호, 2000). 정서는 단일 감정으로 경험되기보다 여러 내적 상태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Plutchik, 2003). 이러한 개별 정서들 간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가 되면서 정서의 구조를 차원으로 개념화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Plutchik, 1980; Russell, 1978).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정서 차원 이론으로, 다양한 정서를 몇 개의 차원 상에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기본 정서 이론이 개별로 이루어진 범주를 통해 정서의 구조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정서 차원 이론은 정서의 차원 구조 개념을 적용한다. 이는 인간의 다양한 정서 경험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 정서의 발생과 정서 상태를 차원화 시키고자 한다. 정서 간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기반으로 하여 소수의 차원을 탐색하는 것으로, 정서가 갖는 유사성과 강도, 양극성의 특성에 따라 둘 이상의 연속적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원이 교차되는 지점에는 여러 정서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는 독립적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정서를 차원으로 분석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와 그 구조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접근 방법이다 (Mauss & Robinson, 2009).

Wundt(1977)는 개별 정서들 간의 구분보다 어떻게 하나의 정서가 또 다른 정서로 발달해 가는지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면서, 이를 차원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서 차원에 대한 연구는 Schlosberg(1954)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주로 안면 표정이나 음성 상태(김혜리 외, 2012), 자기 보고(Russell, 1980), 정서 단어(홍영지, 남예은, 이윤형, 2016; Bush, 1972)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한 개에서 두 개 이상의 다양한 차원이 발견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일찍이 Wundt는 인간의 다양한 정서가 ‘쾌-불쾌’, ‘흥분-억제’, ‘긴장-이완’의 세 가지 차원에 의해 구조화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Schlosberg(1954)는 ‘쾌-불쾌’, ‘주의-거부’, 활성화 수준과 관련된 ‘수면-긴장’을 세 번째 차원으로 도출하였다. Averill(1975) 또한 ‘평가’, ‘활동성’, ‘힘’의 세 개 차원을 발견하였다. Russell(1980)은 정서가 ‘쾌-불쾌’, ‘활성화’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는데, 정서의 배열된 위치가 하나의 원형 형태를 이루고 있어 원형 모형이라고도 한다. 한편, Plutchik(1980)은 Russell과 마찬가지로 정서 수레바퀴라고 불리는 새로운 정서 원형 모형을 통해 정서의 ‘유사성’, ‘강도’ 및 ‘양극성’ 차원을 제시하였다. 정서의 의미와 그 의미가 가진 강하고 약한 수준에 따라 유사성과 강도 차원이 결정되며, 이는 차원 상에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정서는 양극성 차원을 규정하며, 양극에 멀리 자리하고 있다. 안신호, 이승혜와 권오식(1993)은 정서 단어 총집을 구성한 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단어들을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여 정서의 차원을 살펴본 결과, ‘쾌-불쾌’의 단일 차원이 발견되었다. 박인조와 민경환(2005)은 정서 단어 목록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대학생들에게 자유 유사성 분류 과제를 사용하여 정서의 차원을 분석하였으며, ‘쾌-불쾌’, ‘자기 초점-타인 초점’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정서 차원을 도출하였다. 김영아, 김진관, 박수경과 오경자(1997) 또한 정서 어휘 분석을 통해 내적 상태의 차원을 밝히고자 대학생들에게 선정된 단어들의 유사성을 평정하도록 한 결과, 세 개의 차원이 발견되었으며 첫 번째 차원인 ‘쾌-불쾌’와 두 번째 차원인 ‘각성’에 비해 세 번째 차원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해석이 어려웠다. 이처럼 선행연구들(김광수, 한미라, 박병기, 2013; 홍창희, 2004; Osgood & Suci, & Tannenbaum, 1957; Russell, 1980)은 하나의 차원이 인간의 모든 정서를 동일하게 구분하는 유일하고 안정된 차원은 아니므로, 두 개 이상의 차원이 나타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서 차원의 수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어 정서 구조를 설명하는 적합한 차원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예컨

대, '쾌-불쾌', '활성화-비활성화' 차원이라는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나, 그 중 가장 명확하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쾌-불쾌' 차원을 제외한 '활성화-비활성화' 차원에 대해서는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어 정서를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의 기준을 재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각 문화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와 빈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근거한 정서 분화가 발견되는 반면,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관계와 연결성에 관한 정서가 많이 발견되듯(Kitayama, Markus & Kurokawa, 2000), 상황적 맥락에 따라 해석과 적용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은 정서를 의미하는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으며, 이 단어들은 관찰이 불가능한 개인의 다양한 내적 상태와 정서 경험을 매우 정교하고 민감하게 나타낼 수 있다(김민화, 곽금주, 성현란, 심희옥, 장유경, 2003). 언어는 정서 경험을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정서 단어는 정서 연구의 도구로써 가장 발달된 표현 수단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한미라, 김광수, 박병기, 2015). 특히, 정서 단어를 사용하는 연구 목적에 따라 필요한 엄격한 조작과 통제를 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홍영지, 남예은, 이윤형, 2016). 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정서 단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서의 차원을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정서 단어는 단어 사이의 의미적 유사성을 나타내면서도 서로 반대되는 양극성을 보이기도 하며,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보다 더 강하거나 약한 정서를 나타내는 강도가 서로 다른 특징이 있으므로(Kagan, 2007), 상호 연결되어 있는 정서의 다양한 측면을 다룰 수 있는 유용하고 의미 있는 도구가 된다(Heider, 1991). 이러한 정서 단어가 지닌 의미는 '쾌-불쾌', '활성화', '단어 간의 의미적 거리 혹은 결

합의 강도'로 평가할 수 있다. 개인의 내적 상태에 대한 '유인가(誘引價)'와 '현저성(顯著性)'을 강조하는 단어의 특성은 정서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인지 도식을 유사성, 강도 및 양극성 수준에 근거한 소수의 범주로 개념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Plutchik, 2003). 유인가는 '정적-부적' 정서 혹은 '쾌-불쾌' 정서를 나타내고, 현저성은 '낮은 강도-높은 강도'를 의미하는 개념을 띠고 있다(Russell, 1980). 정서 단어는 지니고 있는 의미에 따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되며, 이 특성은 단어의 서로 다른 의미를 구분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즉, 정서의 유사성, 강도 및 양극성의 구조적 특성이 단어를 통해 그 본질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정서 차원은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며(Plutchik, 2003), 정서 단어를 통해 어떤 현상을 살펴보고자 할 때, 단어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정서 차원은 분화되어 정서 발달이 이루어진다. 인간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한두 가지 정서에서 많은 정서로 발전하는가는 정서 발달을 통해 알 수 있다(Sroufe, 1996). 즉, 미분화된 정서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달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분화된 상태로 안정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예컨대, 정서의 분화, 정서 표현, 정서 이해, 정서 조절의 순서로 발달하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복잡하고 정교화되어 간다(황매향, 2008). 출생 시의 정서 반응은 미분화된 흥분 상태로, 강렬하고 빈번하게 나타나며, 자주 변화된다. 이는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화되지 않은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여 긴장을 해소하려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다(Bridges, 1932). 미분화된 반응은 점차 연령과 인지 능력의 성숙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발달한다(Sroufe, 1979). 예컨대, 2~3개월경에 흥분 상태이던 정서는 쾌-불쾌의 정서로 분화되어 기본 정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5~6개월이 되면 불쾌 정서는 분노, 혐오로 분화되고, 7개월경에는 불쾌에서 다시 공포가 분화된다. 정서는

생후 2년 동안에 보다 분화되고 발달하여 복합 정서가 나타나며, 정서의 표현 양상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3~5세경에는 정서는 더욱 분화되어 발달하는데, 정서 표현을 위한 단어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간단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으나 5~6세경이 되어야 비로소 성인과 비슷한 수준의 복잡한 정서로 분화되면서 섬세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아동 후기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정서를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박지선, 2014). 이러한 성숙의 과정 동안 아동기는 타인의 감정을 의식할 수 있게 되며, 대개 성인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많은 인지 능력들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능력은 전 생애동안 계속해서 발달하며, 성인기에 이르러서 점차 주의 깊고 정확해진다(Kalat & Shiota, 2005). 그 이후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발달과 성적 성숙 및 인지적·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서 경험과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시기(이현주, 채유정, 2014), 정서적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만큼 예민하고 논리적인 사고와 다양한 정서 표현이 가능해지며, 정서 상태에 따라 상이한 행동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에 자기중심성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며,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자신과 그들을 비교하기도 한다(최성환, 최해연, 2014). 이러한 양상은 청소년 후기와 성인기에 이르면서 보다 향상된 인지 능력으로 안정되어 가고(McLaughlin, Hatzenbuehler, Mennin, & Nolen-Hoeksema, 2011) 정서의 분화는 더욱 증대되어 비교적 안정되고 객관적인 적응을 보이게 된다(Hurlock, 1949).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의 발달에서는 인지나 행동 측면이 아닌 느낌적인 측면이 1차원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마다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 혐오, 당혹감 등의 일부 정서들을 구별하지만 대부분 동일한 느낌을 갖고 있으며, 진화되고 보편적인 것이 아닌 심리·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서 차원에 대한 경험적 질문을 갖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정서의 차원 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 정서 발달의 근원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가 없다. 가령, 정서의 분화가 선행되어야 발달할 수 있는 정서의 이해와 조절 및 공감 능력을 밝히려는 시도에 집중되어 왔을 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기초적 기반을 설명하지 못한다(Bridges, 1930). 또한, 개인의 정서 상태가 연령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유아 및 아동이나 청소년을 고루 포함하지 않은 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정서의 차원이 전반적인 발달 단계별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서 단어에 내재된 정서 차원을 살펴본 연구는 있으나 정서 단어에 내재된 정서 차원과 그 분화를 통해서 본 정서 발달에 대해서도 국내외에 보고된 연구가 없는 실정으므로 이에 대한 이론적·경험적인 공고화가 필요한 바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서 단어에 내재된 차원의 분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의 정서가 또 다른 정서로 발달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들마다 정서를 구성하는 차원의 수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 정서 구조를 설명하는 적합한 차원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문화적 맥락에 따라 정서의 의미에 대한 개인의 평가가 상이하므로, 이러한 정서들 간의 구분과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어떤 구성 차원을 기준으로 정서를 설명할 수 있는지 재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표성을 가진 정서 단어 분류를 통해 나타난 성인의 정서 차원이 몇 개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한 다음, 연령의 증가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고 발달해온 것인지를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정서 발달 측면과 연결하여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가 정서 발달의 원리를 탐색함으로써 정서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정서 분야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 과제들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방 법

성인의 정서 차원 규명: 대학생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구 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INJE 2018-01-008-005)을 받아 시작하였다. 먼저 성인의 정서 차원을 규명하고자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교에 1~4학년으로 재학 중인 남녀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단어 분류 과제를 실시하였다.

정서의 구성 차원 및 정서 단어 분류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수행되지 않아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 수의 산출은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방법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였다. 그 동안의 연구들이 사용한 단어 분류 방법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어를 선정할 수 있다(이준웅, 송현주, 나은경, 김현석, 2008). 이와 관련하여 장혜진과 김영근(2020)의 연구에서는 정서 차원의 분화를 통해 정서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자 정서 단어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성인의 표본으로 400명의 대학생을 선정하여 각 50명씩, 8차에 걸친 정서 단어 분류 과제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분류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단어에 내재된 차원이 점차 명확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단어 도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장혜진과 김영근(2020)이 사용한 정서 단어 분류 과제의 안정성, 그리고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와 수행 수준을 명확히 확인하였기 때문에 단회에 걸쳐 다차원척도법과 계층적 군집분석 및 좌표값 분석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 대상의 수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학생 12명, 여학생 12명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실시했으며, 연구자 본인이 직접 대면하거나 주변 지인을 통해 표집하였다. 그 중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 및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안신호 등(1993)의 연구에서도 정서 단어를 분석하여 정서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실시한 단어 분류 과제에 20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고, 김송이, 엄진섭, 노은여와 유성은(2013)은 정서 단어를 토대로 개별 정서 요소들을 측정하는 정서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위해 10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정서 단어 카드를 분류하도록 하였다.

Carstensen, Issacowitz와 Charles(1999)에 따르면, 성인은 정서적·사회적 목표가 갈수록 명확해지면서 정서이해 능력이 더욱 발달하게 되는데 그 중 대학생은 30~50대에 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과 정서를 경험하므로 성인을 대표하는 참가자로 적합하다(조은영, 임정하, 2014). 정서 차원은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이르는 동안 점진적인 분화 과정을 거쳐 보다 분명해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연령의 증가에 따라 누적된 총체적인 정서 발달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들(김지혜, 황민철, 김용우, 임좌상, 2009; 한의환, 차형태, 2017)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참가자의 성별과 연령을 구분하여 살펴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김민화 등(2003)의 연구에서 정서 단어에 대한 이해 능력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Russell과 Ridgeway(1983)의 연구에서도 정서 차원 공간에 배치된 단어의 분포 양상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대한 분석을 다루지 않았다.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모집된 참가자들을 개인 또는 집단으로 구성한 후, 주변 환경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연구를 실시하기 전, 모든 참가자에게 준비된 지시문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참가자들의 충분히 이해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다음, 각 분류 시행마다 지시문의 사항에 따른 지정 분류 과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든 연구 과정에서 1회에 한하여 참여하였다. 이는 분류 과제 경험으로 인한 자신의 생각 및 판단이 이후 분류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분류 과제 방식을 두 가지 유형(A, B 유형)으로 구분하여 A 집단과 B 집단에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즉, 분류해야 할 범주의 크기와 횟수는 동일하게 하되, 분류 순서를 다르게 제시하여 구성하였다. 이는 분류 순서가 다를 경우, 참가자의 단어 분류와 이를 통해 나타난 정서 차원의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정서 차원과 분류 순서가 서로 독립적인 관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안신호 등(1993)은 정서의 차원을 보고자 20~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단어 분류 과제를 몇 차례 실시하였으며, 박인조와 민경환(2005)의 연구 또한 40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참가자의 수를 A 집단 12명(남학생 6명, 여학생 6명), B 집단 12명(남학생 6명, 여학생 6명)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총 소요 시간은 평균 20분 정도였다.

## 연구 도구

### 지정 분류 과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지정 분류 과제(bounded sorting test)는 Bush(1972)가 그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유 분류 과제(free sorting test)의 방식을 장혜진과 김영근(2020)이 활용하여 새롭게 변경한 것이다. Bush의 분류 방법에 따르면, 범주 수에 관계없이 유사한 의미의 정서 단어끼리 분류하

도록 하여 그 유사성을 살펴보는 데 반해, 본 연구에서의 지정 분류 과제는 제시되어 있는 범주 수만큼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혜진과 김영근(2020)은 정서의 차원을 통해서 정서 발달 과정을 탐색하고자 대표 정서 단어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선행연구들이 정서 단어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기존의 자유 분류 과제가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과 관련하여 명확성과 효율성이 낮으므로, 이를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한 방식으로 달리 변환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정서 단어의 자유 분류 과제는 참가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에 따라 자유롭게 분류할 수 있는 반면, 일련의 기준이 없어 분류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과제 시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자유 분류 과제는 불성실한 참여로 인해 자료가 신뢰롭지 못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지정 분류 과제는 참가자들에게 분류 범주 수와 분류 순서를 미리 제시하여 주기 때문에 참가자가 재량껏 자유롭게 분류하기가 어려우나 과제 수행에 대한 부담감이 적고 시간이 절약되어 성실한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분류 과제에 사용하는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탐색되는 차원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어에 내재된 정서의 구조를 정교하게 나타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지정 분류 과제는 단어에 대한 참가자 개인의 이해에 기반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개입이 방지된다(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이러한 분류 방법을 사용한 박인조와 민경환(2005)의 연구에서는 3차에 걸친 정서 단어 분류 과제를 시행하였는데, 1차 분류에서 단어를 두 범주로 나누고, 2차 분류에서는 1차 분류에서 만든 범주를 다시 두 범주로 나누었으며, 3차 분류에서 다시 2차 분류에서 만든 범주를 두 범주로 나누면서 각 분류마다 2개, 4개, 8개의 범주를 생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각 범주에 분류되는 정서 단어가 먼저 생성된 범주에 따라 분류되도록 하

는 가능성이 있어 정서 단어에 대한 참가자의 다양한 인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정 분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규칙을 만들어 참가자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첫째, 정서 단어 분류 시, 이전의 분류 범주 수와 다음 분류 범주 수가 배수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한다. 대개 분류 과제에서는 참가자가 먼저 분류한 범주를 다음 분류 순서에서 다시 나누거나 모두 합치는 방식의 전략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가령, 이전 분류에 의해 형성된 범주에 포함된 단어의 내재된 차원이 이후에도 반영된다면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차원은 다양성과 객관성 및 타당성을 갖추기 어렵다. 둘째, 각 범주를 구성하는 정서 단어 카드의 수는 최소 두 개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만약 어떤 범주에 분류되어 속한 단어의 수가 한 개인 경우, 단어들 간 유사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도출되는 차원이 신뢰롭지 않고 부적합하다. 셋째, 이전 분류로 형성된 정서 단어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이후에도 반영하여 단순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후 분류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분류에 관한 참가자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분류마다 분류 범주의 수를 다르게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 지시문

본격적으로 정서 단어를 분류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은 분류 과제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과제 시행에 필요

한 일련의 사항들을 제시하여 지시문을 만들었다. 지시문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서 단어 카드를 분류하는 규칙과 분류 순서, 분류 범주 수, 그리고 분류 횟수 및 절차가 있다. 지시문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참가자와 연구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연습 분류를 1회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 분류 과제의 총 분류 횟수를 연습 분류 1회를 포함하여 7회로 실시하였다. 이를테면, A 집단의 경우, 먼저 연습 분류를 통해 정서 단어들을 4개의 범주로 나눈 후, 11-7-13-5-16-2개의 범주를 차례대로 분류하였다. 분류 과제는 A 집단, B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하기 때문에 연습 분류를 제외한 정식 분류의 순서를 각기 다르게 제시하였다. 분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범위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 정서 단어 카드

본 연구에서는 장혜진과 김영근(2020)이 개발한 대표 정서 단어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 단어에 내재된 차원을 통해 정서의 발달을 살펴보고자 개발된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작업이 대표 정서 단어의 선정이므로, 그들은 다섯 편의 선행연구들에서 선정된 정서 단어들을 토대로, 정서 단어 총집을 구성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한 단어가 부족하고 각기 다르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단어들 간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서 단어를 누락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4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몇 차례에 걸친 유사성에 따른 정서 단어 분류 과제와 그 결과에 따른 단어의 위계적 분

표 1. 대표 정서 단어의 분류 내용 및 대표 정서 단어 카드의 수

연구 집단	정서 단어 수	분류 횟수	분류 범위	총 정서 단어 카드의 수
A	36	7	4→11→7→13→5→16→2	252
B	36	7	4→13→5→16→2→11→7	252

주. 분류 범위는 연습 분류 1회를 포함하여 제시하였음.



류를 반복 시행하고 검증함으로써 387개의 단어를 48개로 축약하였다.

한편, 초등학생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비교적 정서 단어의 사용 빈도나 경험 빈도가 낮을 수 있다(Kagan, 2007). 만약 해당 단어가 의미하는 정서를 경험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며,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이수미, 조경자, 김혜리, 2012). 이처럼 생소한 정서 단어로 인한 결과의 오류를 배제하고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분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3학년으로 구성된 1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8개의 단어를 재선별하여 최종적으로 36개의 대표 정서 단어를 선정하였다. 장혜진과 김영근(2020)은 그들의 연구에서 선행연구들의 절차에서 확인되는 정서 단어 선정의 방법적인 한계점을 극복하여 최대한 정교한 대표 정서 단어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그 구성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예컨대, 여러 단계의 시행을 거쳐 엄격하고 정밀하게 단어의 분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전혀 수행되지 않은 방식으로써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다양한 연령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선정하였으며, 정서의 유사성, 강도 및 양극성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

치가 있다. 이와 같이 대표 정서 단어 카드는 총 36장으로, 가로 7cm × 세로 3cm 규격의 종이로 제작되었다. 대표 정서 카드의 앞면에는 대표 정서 단어가 기재되어 있고, 뒷면의 우측 상단에는 각 대표 정서 단어를 식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를 작은 크기로 표시해 두었다. 대표 정서 단어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자료 분석

참가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Matlab(Matrix Laboratory) 2017과 IBM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25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차원척도법과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과제 진행 사항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했던 연습 분류 1회를 제외한 나머지 정식 분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우선, Matlab을 통하여 대표 정서 단어 분류 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 자료를 종합하여 변환하였다. 즉, 의미적 유사성에 따라 각 범주로 분류된 n개의 정서 단어들 간의 상대적 거리를 n×n 형식의 행렬로 정리한다. 이는 동일한 범주로 분류되는 단어의 빈도수는 단어의 유사성을 나타내므로, 각 범주의 수를 합하여 정서 단어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가자가

표 2. 36개 대표 정서 단어의 목록

36개 대표 정서 단어			
감동하다	무섭다	사랑하다	자랑스럽다
걱정하다	미안하다	샘나다	절망하다
고맙다	밋다	슬프다	좋아하다
괴롭다	부끄럽다	싫다	즐겁다
궁금하다	분하다	심심하다	짜증나다
기쁘다	불만스럽다	안심하다	행복하다
긴장하다	불쌍하다	억울하다	화나다
놀라다	불안하다	외롭다	후회하다
만족하다	불편하다	우울하다	흥분하다

나는 범주의 수는 전체 정서 단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 정서의 주요한 차원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과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HCA)을 사용하였다. 다차원척도법은  $n$ 개 개체에 대해 참가자가 인식하고 있는 심상 자극의 차원을 밝힐 수 있는 자료 분석 방법이다(허명희, 양경숙, 2001). 개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유사성(similarity) / 비유사성(dissimilarity) 혹은 근접성(proximity)의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잠재적 차원(latent dimension)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에 시각적으로 배치시킨다(박광배, 2000). 따라서 다차원 공간상에서 단어들 간의 거리가 가깝거나 먼 기준은 유사성의 수준이다(Russell, 1980). 계층적 군집분석은 분류되는 변인을 통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대상을 구분하여 집단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확인하는 자료 분석 방법이다. 분석에 사용된 유사성 자료와 그 결과가 나타내는 객관성 및 적합성을 통해 일치되는 수준을 확인하고, 차원의 수와 차원의 의미 해석, 그리고 그 결과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차원척도법과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를 오버레이(overlay)하여 여러 단계로 비교 및 검토하였다.

## 결 과

정서 단어 분류 과제에 대한 성인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단어들 간의 유사성 행렬에 대한 상대적 거리를 계산한 다음, 이를 다차원척도법과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차원 수를 살펴보기 위한 적합도 검증에서 산출된 스트레스 값을 확인하였다. 스트레스는 개체 간의 유사성 자료와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공간 사이의 차이를 정의한 함수로, 일반적으로 .05보다 작을수록 좋다. 다음, 정서 차원의 도출에 적합한 분석 자료를 얻기 위한 반복

과정으로, 차원의 수를 다르게 설정하여 차례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차원의 수가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값은 낮아지므로 추측된 차원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이 정서의 구조로 1차원에서 4차원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차원의 수를 5로 가정하였을 때, A, B, A+B 집단 모두 원 스트레스 측정치는 .05보다 크게 나왔으나 차원의 수를 3으로 설정했을 경우에 A, B, A+B 집단 모두 원 스트레스 측정치가 .03으로, .05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차원 수에 따른 스트레스 값을 나타내는 스크리 도표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으로, 스크리 도표 위에 나타난 차원과 유사성 자료와의 거리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스트레스 값은 차원의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므로, 더 이상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는 정도에서 차원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에 스크리 도표에서는 1차원에서 3차원으로 스트레스 값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3차원에서 4차원에서의 감소는 비교적 완만한 수준에 그쳐 성인의 정서는 최소 1차원에서 최대 3차원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Kruskal (1964)은 스크리 도표에서 스트레스 값이 처음으로 크게 감소하는 지점(elbow)을 차원 수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는 차원의 수가 그보다 증가하더라도 스트레스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박광배, 2000). 이상에서 살핀 바대로 성인의 정서는 최소 1차원에서 3차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보다 명확한 차원의 도출과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였다.

한편, 정서 단어 분류에 대한 A와 B 집단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단어의 배치된 양상과 정서 차원이 서로 일치되게 나온 점으로 보아, 정서 단어 분류 순서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차원 도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B 집단으로 통합하여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제시

하는 분석 결과는 A+B 집단의 응답 자료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첫 번째로, 다차원척도법을 실시하여 정서 단어의 유사성 자료를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공간에 배치하여 정서의 구성 차원을 살펴보았다. 각 정서 단어는 3차원의 공간 상에서 점으로 표현되는데, 점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점 간의 거리가 멀수록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서 차원은 이에 근거하여 3차원으로 구성된 평면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를테면, X축과 Y축으로부터 각각 1차원과 2차원을 도출할 수 있으며, 두 개의 차원이 교차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3차원을 도출하여 해석 가능하다. A+B 집단의 응답 자료에 대한 다차원척도법의 분석 결과는 다음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그림 1~그림 3).

A+B 집단의 경우, 1차원의 한 극은 '감동하다', '기쁘다', '만족하다', '사랑하다', '안심하다', '좋아하다', '행복하다' 등이 형성하고 있고, 한 극은 '괴롭다', '무섭다', '불안하다', '슬프다', '우울하다', '절망하다', '화나다' 등이 위치하고

있다(그림 1).

2차원의 한 극은 '놀라다', '무섭다', '분하다', '즐겁다', '화나다', '행복하다', '흥분하다' 등이 구성하고 있고, 한 극은 '미안하다', '부끄럽다', '불쌍하다', '슬프다', '우울하다', '외롭다', '후회하다' 등이 형성하고 있다(그림 2). 마지막으로 3차원의 한 극은 '걱정하다', '긴장하다', '불안하다', '심심하다', '안심하다', '외롭다', '절망하다' 등이 모여 있고, 한 극은 '고맙다', '미안하다', '밉다', '불편하다', '사랑하다', '싫나다', '싫다' 등이 구성하고 있다(그림 3). 한편,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1차원과 마찬가지로 2차원과 3차원의 좌표축을 한 공간에 배치했을 때에도 정서 단어들이 지닌 각 차원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 기준을 염두에 두고자 3차원과 2차원을 동시에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유사성에 따라 정서 단어가 어떻게 분류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계층적 군집분석의 한 종류인 Ward 연결법(Borgen & Barnett, 1987)을 통해 A, B, A+B 집단의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생성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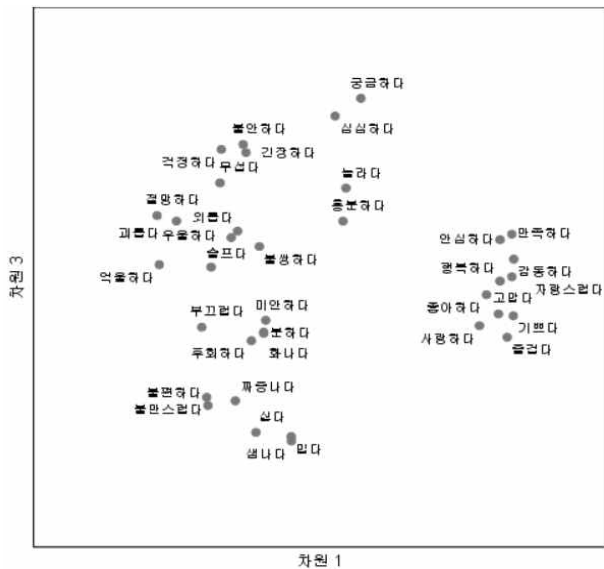


그림 1. 36개 대표 정서 단어의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 1차원(A+B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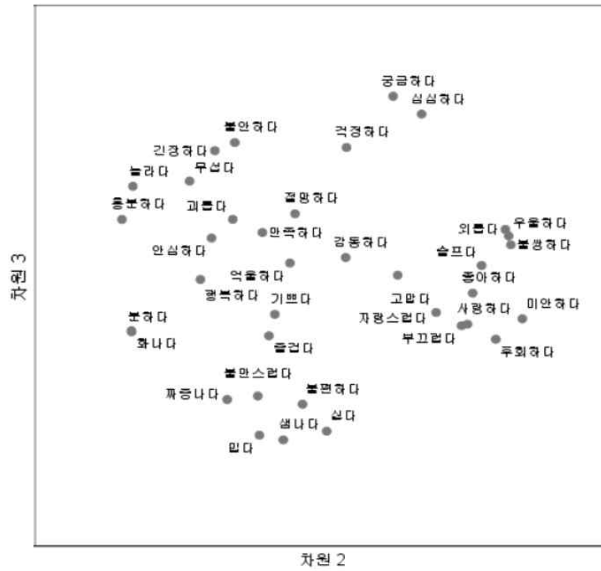


그림 2. 36개 대표 정서 단어의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 2차원(A+B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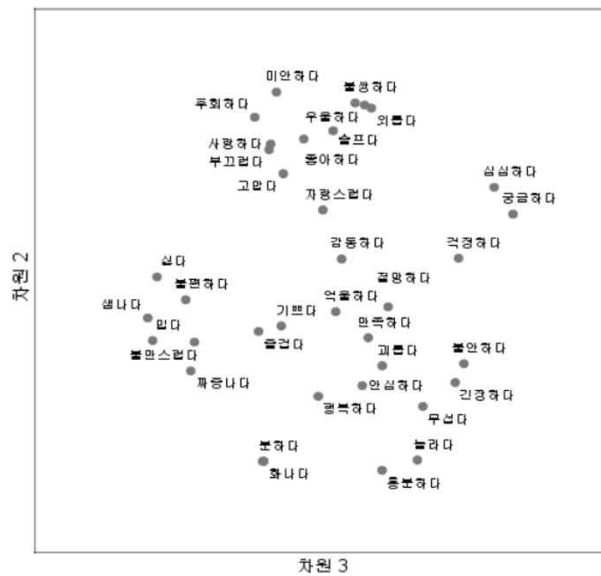


그림 3. 36개 대표 정서 단어의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 3차원(A+B 집단)

였다. 그 결과, 의미가 서로 관련된 정서 단어가 어떻게 각 군집으로 분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그림 4). 동시에 Ward 연결법이 타당한지를 알아보하고자 계층적 군집분석 기법 중 하나인

평균 연결법(average linkage method)을 사용하였다. 평균 연결법은 각 범주에 포함된 단어들을 계층적인 군집으로 종합하는 과정에서, 분류학적으로 가장 유사성이 높은 군집과 그 군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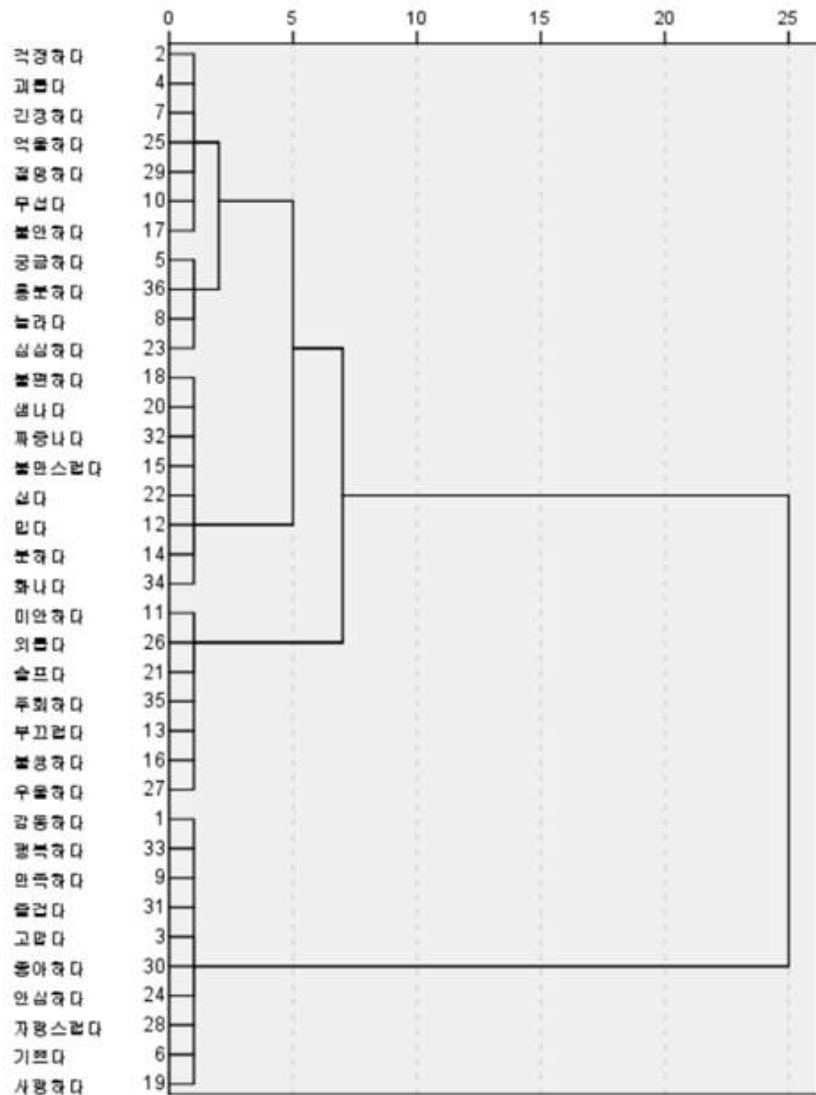


그림 4. 36개 대표 정서 단어의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A+B 집단)

보다 상위의 큰 군집으로 통합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의미한다. 그 결과, Ward 연결법으로 A, B, A+B 집단의 군집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차원 척도법과 계층적 군집분석의 덴드로그램에서 확인되는 정서 단어의 분류 결과가 전체적으로 일치하여 서로 차이가 없으므로, 분류가 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 즉, 두 결과 모두 가장 유사한 의

미를 지니는 정서 단어들 간의 관계를 각 차원과 군집으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서 단어의 특성을 잘 반영하였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림 4에서 25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크게 두 군집(1, 2)으로 분류된다. 군집 1은 '기쁨, 만족, 사랑(1)'의 하위 군집 내에 '감동하다', '고맙다', '기쁘다', '만족하다', '사랑하다', '안심하다', '자랑스럽다', '좋아하다', '즐겁

다, '행복하다(1-1)'를 포함하고, 군집 2는 '괴로움, 낮은 각성, 높은 각성, 무서움, 불만, 수치, 슬픔, 억울, 측은, 혐오, 화남, 후회(2)'로, 다시 '괴로움, 무서움, 억울(2-1)', '낮은 각성, 높은 각성(2-2)', '불만, 혐오, 화남(2-3)', '수치, 슬픔, 측은, 후회(2-4)'로 구성된 네 가지 하위 범주로 분류된다. '괴로움, 무서움, 억울'에는 '걱정하다', '괴롭다', '긴장하다', '무섭다', '불안하다', '억울하다', '절망하다'가 속하고, '낮은 각성, 높은 각성'에는 '궁금하다', '놀라다', '심심하다', '흥분하다'가 포함된다. '불만, 혐오, 화남'에는 '밉다', '분하다', '불만스럽다', '불편하다', '싫다', '짜증나다', '화나다'가 한 군집으로 묶이며, '수치, 슬픔, 측은, 후회'에는 '미안하다', '부끄럽다', '불쌍하다', '슬프다', '외롭다', '우울하다', '후회하다'가 한 군집을 형성한다. 정서 단어 군집은 다시 두 개의 군집(3, 4)으로 새롭게 구성된다. 군집 3은 '괴로움, 기쁨, 높은 각성, 만족, 무서움, 불만, 억울, 혐오, 화남(3)'으로, '괴로움, 높은 각성, 무서움, 억울(3-1)', '불만, 혐오, 화남(3-2)', '기쁨, 만족(3-3)'으로 구성된 세 개의 하위 군집으로 분류된다. '괴로움, 높은 각성, 무서움, 억울'에는 '괴롭다', '긴장하다', '무섭다', '불안하다', '억울하다', '절망하다'가 '놀라다', '흥분하다'와 2단위 내에서 한 군집을 형성한다. '불만, 혐오, 화남'에는 '밉다', '분하다', '불만스럽다', '불편하다', '싫다', '짜증나다', '화나다'가 묶이고, '기쁨, 만족'에는 '기쁘다', '만족하다', '안심하다', '즐겁다', '행복하다'가 한 군집을 이루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군집 4도 '기쁨, 낮은 각성, 사랑, 수치, 슬픔, 측은, 혐오, 후회(4)'로, '낮은 각성(4-1)', '혐오(4-2)', '수치, 슬픔, 측은, 후회(4-3)', '기쁨, 사랑(4-4)'으로 구성된 네 개의 하위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낮은 각성'에는 '궁금하다', '심심하다'가 묶이고, '혐오'에는 '싫다'가 한 군집을 이루고 있다. '수치, 슬픔, 측은, 후회'에는 '감동하다', '미안하다', '부끄럽다', '불쌍하다', '슬프다', '외롭다', '우울하다', '후회하다'가 포함되고, '기쁨, 사랑'에는

'감동하다', '고맙다', '사랑하다', '자랑스럽다', '좋아하다'로 한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정서 단어 군집은 또 다른 두 개의 군집(5, 6)을 이루고 있다. 군집 5는 '괴로움, 기쁨, 낮은 각성, 높은 각성, 만족, 무서움, 슬픔, 억울, 측은(5)'으로, 다시 '괴로움, 낮은 각성, 높은 각성, 무서움, 억울(5-1)', '슬픔, 측은(5-2)', '기쁨, 만족(5-3)'으로 구성된 세 개의 하위 군집으로 분류된다. '괴로움, 낮은 각성, 높은 각성, 무서움, 억울'에는 '걱정하다', '괴롭다', '긴장하다', '무섭다', '불안하다', '억울하다', '절망하다'가 '궁금하다', '놀라다', '심심하다', '흥분하다'와 2단위 내에서 한 군집을 형성한다. '슬픔, 측은'에는 '불쌍하다', '슬프다', '외롭다', '우울하다'가 속하고, '기쁨, 만족'에는 '감동하다', '만족하다', '안심하다', '자랑스럽다', '행복하다'를 묶어 한 군집을 이루고 있다. 한편, 군집 6은 '기쁨, 불만, 사랑, 수치, 혐오, 화남, 후회(6)'로, '불만, 혐오, 화남(6-1)', '수치, 후회(6-2)', '기쁨, 사랑(6-3)'으로 구성된 세 개의 하위 군집으로 분류된다. '불만, 혐오, 화남'은 '밉다', '분하다', '불만스럽다', '불편하다', '싫다', '짜증나다', '화나다'를 포함하고, '수치, 후회'에는 '미안하다', '부끄럽다', '후회하다'를 묶어 한 군집을 구성하고 있다. '기쁨, 사랑'은 '고맙다', '사랑하다', '좋아하다', '즐겁다'를 포함하여 한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세 개의 다차원 공간을 이루는 각 구성 차원이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 해석하기 위하여 3차원 좌표 상에 배열된 정서 단어 위치를 정리하였다. 이는 다차원공간을 결정짓는 차원의 의미를 이론주도적 또는 가설검증적으로 탐색하기 위함이다(박광배, 2000). 또한, 차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적으로 명료하게 정의하는 것이 도출된 정서 차원의 타당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김영아 외, 1997). 따라서 다차원 척도법의 분석 결과에서 제시한 3차원 좌표에 기초하여, 각 정서 차원의 0점을 중심으로 한 후, 부적 방향과 정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표 3. 1차원에 대한 정서 단어의 좌표값(A+B 집단)

1차원 부적 방향	정서 단어	1차원 0점 기준	정서 단어	1차원 정적 방향	정서 단어
-0.60	절망하다	0.05	심심하다	0.72	감동하다
-0.60	억울하다	0.08	흥분하다	0.72	기쁘다
-0.53	괴롭다	0.09	놀라다	0.72	자랑스럽다
-0.44	부끄럽다	-0.10	생나다	0.72	만족하다
-0.42	불만스럽다	-0.10	밉다	0.70	즐겁다
-0.41	불편하다	-0.20	미안하다	0.67	안심하다

표 4. 2차원에 대한 정서 단어의 좌표값(A+B 집단)

2차원 부적 방향	정서 단어	2차원 0점 기준	정서 단어	2차원 정적 방향	정서 단어
-0.59	흥분하다	0.01	싫다	0.59	미안하다
-0.57	화나다	-0.06	불편하다	0.56	불쌍하다
-0.57	분하다	0.06	감동하다	0.55	우울하다
-0.56	놀라다	0.07	걱정하다	0.54	외롭다
-0.39	무섭다	-0.08	절망하다	0.51	후회하다
-0.36	행복하다	-0.09	억울하다	0.47	슬프다

표 5. 3차원에 대한 정서 단어의 좌표값(A+B 집단)

3차원 부적방향	정서 단어	3차원 0점 기준	정서 단어	3차원 정적방향	정서 단어
-0.65	생나다	0.00	자랑스럽다	0.71	궁금하다
-0.63	밉다	-0.01	행복하다	0.64	심심하다
-0.61	싫다	0.04	슬프다	0.52	불안하다
-0.50	불편하다	0.05	억울하다	0.50	걱정하다
-0.49	짜증나다	-0.06	좋아하다	0.49	긴장하다
-0.47	불만스럽다	-0.14	고맙다	0.37	무섭다

단어들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0점과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는 단어들을 선택하였고, 부적 방향과 정적 방향에서 가장 멀리 배치되어 있는 단어들을 선택하였다. A+B 집단의 응답 자료에

대한 좌표값 분석 결과는 다음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표 3~표 5).

먼저, A+B 집단의 1차원에서 부적 방향과 정적 방향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단어들의 의미

를 살펴보았을 때, 1차원의 부정적 방향은 '절망하다', '억울하다', '괴롭다', '부끄럽다', '불만스럽다', '불편하다'의 단어들 분포되어 있고, 정적 방향은 '감동하다', '기쁘다', '자랑스럽다', '만족하다', '즐겁다', '안심하다'의 단어들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0점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단어들은 '심심하다', '흥분하다', '놀라다', '생나다', '밧다', '미안하다'가 있다(표 3). 다음으로, A+B 집단의 2차원의 부정적 방향은 '흥분하다', '화나다', '분하다', '놀라다', '무섭다', '행복하다'의 단어들 배치되어 있고, 정적 방향은 '미안하다', '불쌍하다', '우울하다', '외롭다', '후회하다', '슬프다'의 단어들 위치하고 있다. 나머지 0점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단어들은 '싫다', '불편하다', '감동하다', '걱정하다', '절망하다', '억울하다'의 단어들 놓여 있다(표 4).

마지막으로, A+B 집단의 3차원의 부정적 방향은 '생나다', '밧다', '싫다', '불편하다', '짜증나다', '불만스럽다'의 단어들 배열되어 있고, 정적 방향은 '궁금하다', '심심하다', '불안하다', '걱정하다', '긴장하다', '무섭다'의 단어들 자리하고 있다. 나머지 0점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단어들은 '자랑스럽다', '행복하다', '슬프다', '억울하다', '좋아하다', '고맙다'의 단어들 놓여 있다(표 5).

이상으로, 성인의 정서를 구성하는 차원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정서는 3차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서의 1차원을 '쾌-불쾌', 2차원을 '활성화-비활성화', 3차원을 '자기 지향-타인 지향'으로 명명하였다.

## 방 법

청소년의 정서 차원 규명: 고등학생

## 연구 대상

경상남도과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 1~3학년으로 재학 중인 남녀 학생 24명으로, 남학생 12명, 여학생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 및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이들은 미성년자로서,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먼저 구한 후에 참여를 허가하였다. 이는 연구의 다른 피험자인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뒤이어 제시하는 연구 대상의 설명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 연구 절차

실험 절차 및 실험에 사용된 도구(지시문, 정서 단어 카드)는 이전 실험과 동일하였다. 실험을 완료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25분 정도였다.

## 결 과

먼저, 차원 수를 살펴보기 위한 적합도 검증에서 A+B 집단의 원 스트레스 측정치를 도출하였다. 적합한 스트레스 값을 탐색하기 위한 반복 과정으로 차원의 수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여 살펴본 결과, 차원의 수를 3으로 설정했을 경우에 원 스트레스 측정치가 .02로, .05보다 작게 나타났다. 또한, 스크리 도표에서 스트레스 값이 1차원에서 2차원으로 최초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2차원에서 3차원에서의 감소는 비교적 완만한 수준을 나타내어 고등학생의 정서는 최소 1차원에서 최대 3차원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에서 살핀 바대로, 고등학생의 정서를 최대 3차원으로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



여 차원의 해석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실시하였다. 먼저, 다차원척도법을 실시하여 정서 단어의 유사성 자료를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공간에 배열하여 정서의 구성 차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그림 5~그림 7).

그림 5에서 1차원의 한 극은 ‘감동하다’, ‘기쁘다’, ‘만족하다’, ‘사랑하다’, ‘좋아하다’, ‘즐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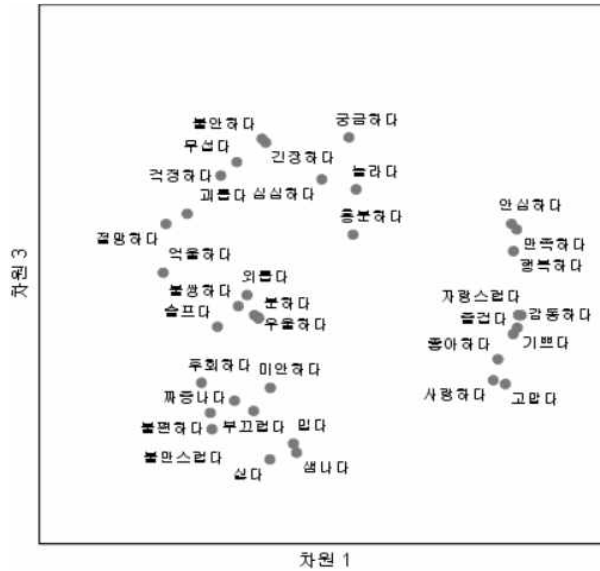


그림 5. 36개 대표 정서 단어의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 1차원(A+B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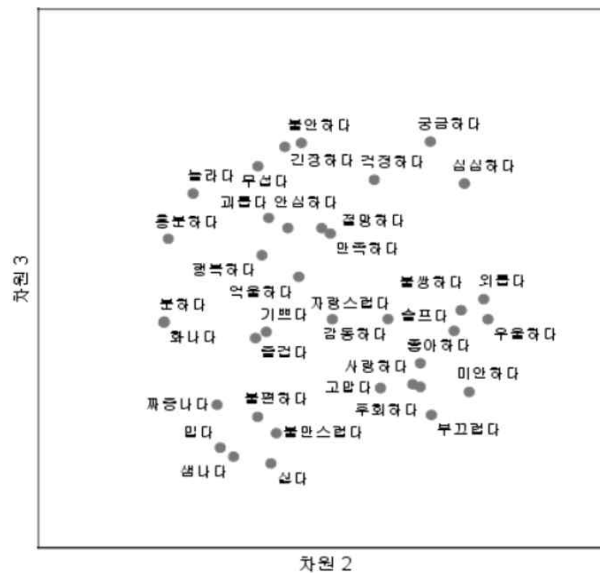


그림 6. 36개 대표 정서 단어의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 2차원(A+B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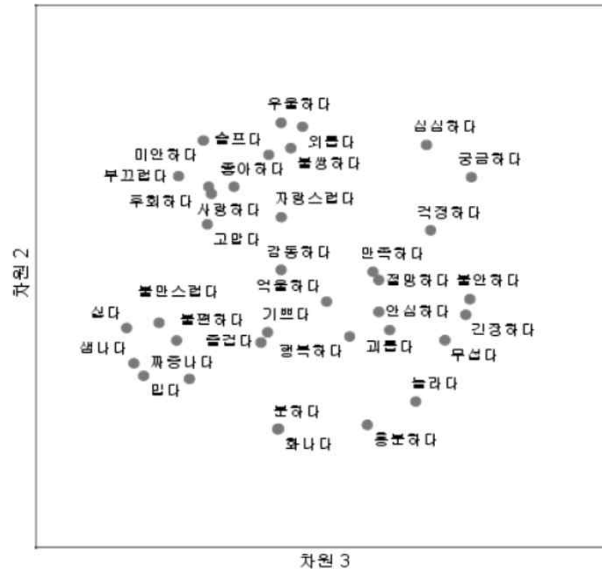


그림 7. 36개 대표 정서 단어의 다차원적도법 분석 결과: 3차원(A+B 집단)

다, '행복하다' 등이 자리하고 있고, 한 극은 '긴장하다', '밋다', '불쌍하다', '싫다', '우울하다', '절망하다', '화나다' 등이 형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2차원은 '걱정하다', '궁금하다', '미안하다', '슬프다', '심심하다', '외롭다', '우울하다' 등이 한 극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한 극은 '괴롭다', '놀라다', '무섭다', '분하다', '즐겁다', '화나다', '흥분하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6). 마지막으로, 3차원의 한 극은 '괴롭다', '긴장하다', '만족하다', '불안하다', '심심하다', '안심하

다, '절망하다' 등이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한 극은 '고맙다', '미안하다', '밋다', '불만스럽다', '샘나다', '싫다', '짜증나다' 등이 구성하고 있다(그림 7).

다음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Ward 연결법을 통해 A+B 집단의 덴드로그램을 생성하여 의미가 유사한 정서 단어들끼리 각 군집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평균 연결법을 통해 Ward의 연결법으로 군집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다음, 세

표 6. 1차원에 대한 정서 단어의 좌표값(A+B 집단)

1차원 부적 방향	정서 단어	1차원 0점 기준	정서 단어	1차원 정적 방향	정서 단어
-0.60	억울하다	-0.01	심심하다	0.73	감동하다
-0.59	절망하다	0.08	궁금하다	0.72	자랑스럽다
-0.51	괴롭다	0.10	흥분하다	0.72	기쁘다
-0.46	후회하다	-0.10	샘나다	0.71	만족하다
-0.43	불편하다	0.11	놀라다	0.70	행복하다
-0.42	불만스럽다	-0.11	밋다	0.70	즐겁다

표 7. 2차원에 대한 정서 단어의 좌표값(A+B 집단)

2차원 부적 방향	정서 단어	2차원 0점 기준	정서 단어	2차원 정적 방향	정서 단어
-0.60	분하다	-0.01	절망하다	0.60	우울하다
-0.60	화나다	0.01	만족하다	0.59	외롭다
-0.58	흥분하다	0.02	고맙다	0.53	미안하다
-0.49	놀라다	-0.08	불안하다	0.52	심심하다
-0.40	짜증나다	-0.09	억울하다	0.50	불쌍하다
-0.39	밧다	0.18	걱정하다	0.48	슬프다

표 8. 3차원에 대한 정서 단어의 좌표값(A+B 집단)

3차원 부적 방향	정서 단어	3차원 0점 기준	정서 단어	3차원 정적 방향	정서 단어
-0.58	싫다	-0.01	불쌍하다	0.60	궁금하다
-0.56	생나다	0.02	외롭다	0.60	불안하다
-0.52	밧다	-0.05	감동하다	0.58	긴장하다
-0.47	불만스럽다	-0.05	자랑스럽다	0.51	무섭다
-0.41	불편하다	0.10	억울하다	0.46	걱정하다
-0.40	부끄럽다	0.18	행복하다	0.45	심심하다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각 정서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 3차원 좌표 상에 배치된 정서 단어 위치를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살펴보았다(표 6~표 8).

1차원에서 부적 방향과 정적 방향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볼 때, 1차원의 부적 방향은 '억울하다', '절망하다', '괴롭다', '후회하다', '불편하다', '불만스럽다'의 단어들 분포되어 있고, 정적 방향은 '감동하다', '자랑스럽다', '기쁘다', '만족하다', '행복하다', '즐겁다'의 단어들 자리하고 있다. 0점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단어들은 '심심하다', '궁금하다', '흥분하다', '생나다', '놀라다', '밧다'가 있다(표 6).

2차원의 부적 방향은 '분하다', '화나다', '흥

분하다', '놀라다', '짜증나다', '밧다'의 단어들 위치하고 있고, 정적 방향은 '우울하다', '외롭다', '미안하다', '심심하다', '불쌍하다', '슬프다'의 단어들 배치되어 있다. 나머지 0점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단어들은 '절망하다', '만족하다', '고맙다', '불안하다', '억울하다', '걱정하다'의 단어들 놓여 있다(표 7). 3차원의 부적 방향은 '싫다', '생나다', '밧다', '불만스럽다', '불편하다', '부끄럽다'의 단어들 배치되어 있고, 정적 방향은 '궁금하다', '불안하다', '긴장하다', '무섭다', '걱정하다', '심심하다'의 단어들 자리하고 있다. 나머지 0점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단어들은 '불쌍하다', '외롭다', '감동하다', '자랑스럽다', '억울하다', '행복하다'의 단어들 배치되어 있다(표 8).

이상으로, 고등학생의 정서를 구성하는 차원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정서는 3차원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정서의 1차원을 '쾌-불쾌', 2차원을 '활성화-비활성화', 3차원을 '자기 지향-타인 지향'으로 명명하였다.

연구 절차

실험 절차 및 실험에 사용된 도구(지시문, 정서 단어 카드)는 이전 실험과 동일하였다. 실험을 완료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25분 정도였다.

결 과

방 법

청소년의 정서 차원 규명: 중학생

연구 대상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남녀 학생들 중,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보인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남학생 12명, 여학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차원 수를 살펴보기 위한 적합도 검증에서 A+B 집단의 원 스트레스 측정치를 도출하였다. 적합한 스트레스 값을 탐색하기 위한 반복 과정으로 차원의 수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여 살펴본 결과, 3으로 설정했을 경우에 원 스트레스 측정치가 .02로, .05보다 작게 나타났다. 한편, 스크리 도표에서 스트레스 값이 1차원에서 2차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2차원에서 3차원에서의 감소는 비교적 완만한 수준을 나타내어 중학생의 정서는 최소 1차원에서 최대 3차원이 도출될 가능성을 나타냈다. 이상에서 살펴바대로, 중학생의 정서를 3차원이라는 점에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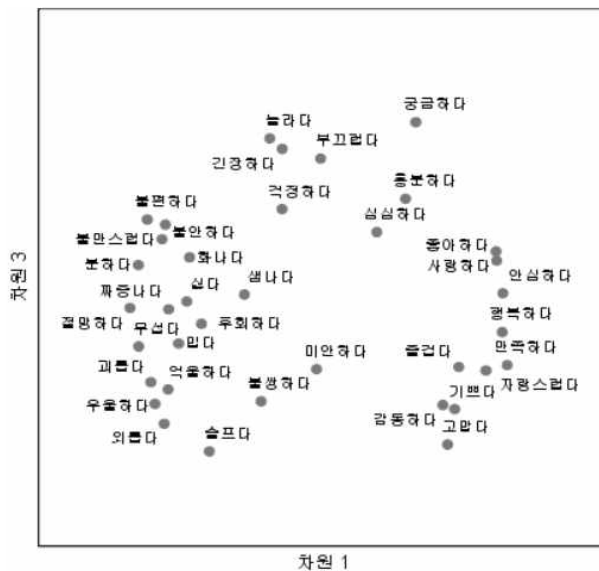


그림 8. 36개 대표 정서 단어의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 1차원(A+B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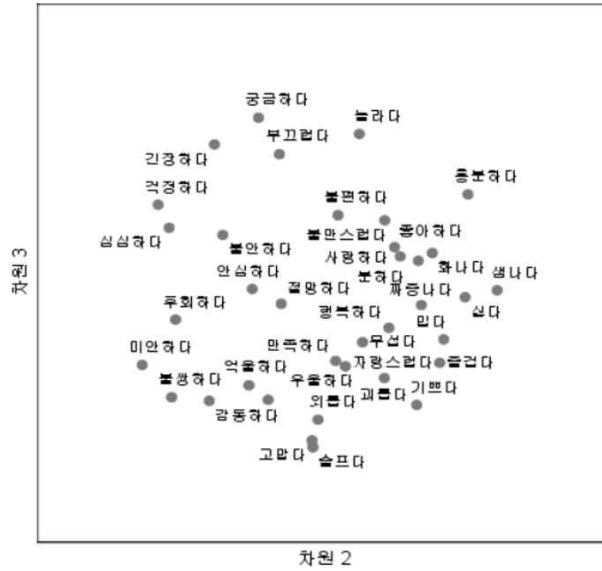


그림 9. 36개 대표 정서 단어의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 2차원(A+B 집단) - 최종 선택된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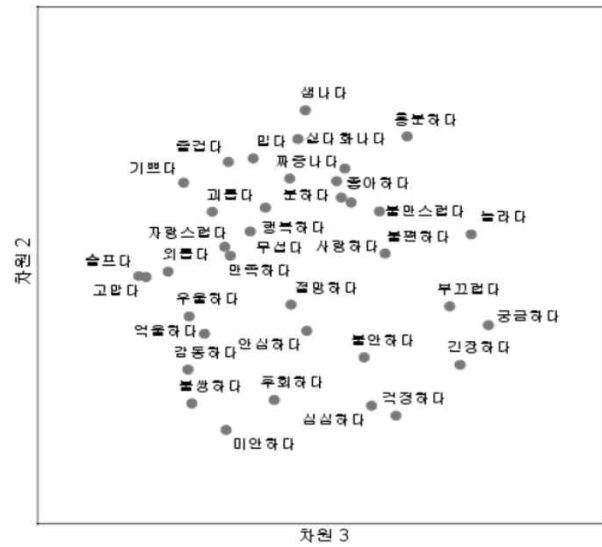


그림 10. 36개 대표 정서 단어의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 3차원(A+B 집단)

초하여 차원의 수를 명확하게 밝히고 차원의 해석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실시하였다. 먼저, 다차원척도법을 실시하여 정서 단어의 유사성 자료를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공간에 배열하여 정서의 구성 차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그림 8~그림 10).

그림 8에서 1차원의 한 극은 ‘고맙다’, ‘기쁘다’, ‘만족하다’, ‘사랑하다’, ‘안심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등이 자리하고 있고, 한 극은 ‘괴롭다’, ‘긴장하다’, ‘무섭다’, ‘슬프다’, ‘외롭

다, '짜증나다', '화나다' 등이 형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2차원은 '걱정하다', '긴장하다', '미안하다', '불쌍하다', '심심하다', '안심하다', '우울하다' 등이 한 극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한 극은 '놀라다', '무섭다', '분하다', '즐겁다', '짜증나다', '화나다', '흥분하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9). 마지막으로, 3차원의 한 극은 '고맙다', '기쁘다', '불쌍하다', '밧다', '슬프다', '외롭다' 등이 배치하고 있고, 나머지 한 극은 '긴장하다', '부끄럽다', '불편하다', '사랑하다', '심심하다', '화나다' 등이 형성하고 있다(그림 10).

다음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Ward 연결법을 통해 A+B 집단의 덴드로그램을 생성하여 의미가 유사한 정서 단어들에 각 군집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평균 연결법을 통해 Ward의 연결법으로 군집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다음,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각 정서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 3차원 좌표 상에 배치된 정서 단어 위치를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살펴보았다(표 9~표 11).

1차원에서 부적 방향과 정적 방향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1차원의 부적 방향은 '절망하다', '분하다', '무섭다', '불편하다', '괴롭다', '우울하다'의 단어들이 배치되어 있고, 정적 방향은 '만족하다', '안심하다', '행복하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자랑스럽다'의 단어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0점을 중심으로 '긴장하다', '걱정하다', '미안하다', '놀라다', '부끄럽다', '심심하다'가 있다(표 9). 2차원의 부적 방향은 '미안하다', '걱정하다', '심심하다', '불쌍하다', '후회하다', '감동하다'의 단어들이 위치하고 있고, 정적 방향은 '쌘나다', '흥분하다', '싫다', '밧다', '즐겁다', '화나다'의 단어

표 9. 1차원에 대한 정서 단어의 좌표값(A+B 집단)

1차원 부적 방향	정서 단어	1차원 0점 기준	정서 단어	1차원 정적 방향	정서 단어
-0.58	절망하다	-0.04	긴장하다	0.74	만족하다
-0.55	분하다	-0.04	걱정하다	0.72	안심하다
-0.54	무섭다	0.07	미안하다	0.72	행복하다
-0.51	불편하다	-0.08	놀라다	0.70	좋아하다
-0.50	괴롭다	0.08	부끄럽다	0.70	사랑하다
-0.49	우울하다	0.28	심심하다	0.67	자랑스럽다

표 10. 2차원에 대한 정서 단어의 좌표값(A+B 집단)

2차원 부적 방향	정서 단어	2차원 0점 기준	정서 단어	2차원 정적 방향	정서 단어
-0.68	미안하다	-0.02	외롭다	0.64	쌘나다
-0.62	걱정하다	0.04	만족하다	0.53	흥분하다
-0.58	심심하다	-0.04	슬프다	0.52	싫다
-0.57	불쌍하다	-0.04	고맙다	0.44	밧다
-0.55	후회하다	0.05	불편하다	0.42	즐겁다
-0.43	감동하다	0.07	자랑스럽다	0.40	화나다

표 11. 3차원에 대한 정서 단어의 좌표값(A+B 집단)

3차원 부적 방향	정서 단어	3차원 0점 기준	정서 단어	3차원 정적 방향	정서 단어
-0.54	슬프다	0.01	싫다	0.67	궁금하다
-0.52	고맙다	-0.01	절망하다	0.61	놀라다
-0.44	외롭다	-0.01	짜증나다	0.57	긴장하다
-0.39	기쁘다	0.03	샘나다	0.54	부끄럽다
-0.37	감동하다	0.04	안심하다	0.39	흥분하다
-0.37	우울하다	-0.07	후회하다	0.35	걱정하다

들이 나열되어 있다. 나머지 0점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단어들은 ‘외롭다’, ‘만족하다’, ‘슬프다’, ‘고맙다’, ‘불편하다’, ‘자랑스럽다’의 단어들이 배치되어 있다(표 10). 3차원의 부적 방향은 ‘슬프다’, ‘고맙다’, ‘외롭다’, ‘기쁘다’, ‘감동하다’, ‘우울하다’의 단어들이 배열되어 있고, 정적 방향은 ‘궁금하다’, ‘놀라다’, ‘긴장하다’, ‘부끄럽다’, ‘흥분하다’, ‘걱정하다’의 단어들이 위치하고 있다. 나머지 0점을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단어들은 ‘싫다’, ‘절망하다’, ‘짜증나다’, ‘샘나다’, ‘안심하다’, ‘후회하다’의 단어들이 배치되어 있다(표 11).

이상으로, 중학생의 정서를 구성하는 차원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와 그에 따라 배치되어 있는 각 차원별 정수 방향의 정서 단어들은 중학생의 정서가 3차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다. 특히,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자기 지향-타인 지향’의 차원이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정서는 2차원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정서의 1차원을 ‘쾌-불쾌’, 2차원을 ‘활성화-비활성화’로 명명하였다.

아동의 정서 차원 규명: 초등학교

연구 대상

경상남도 소재 초등학교에 3학년, 5학년으로 재학 중인 남녀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각 학년별로 남학생 6명, 여학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저 연령으로 초등학교 3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3학년에 해당하는 10세 아동의 수용 어휘는 40,000개로, 어휘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데(Anglin, 1993), 비록 이전 시기까지의 유아가 언어 능력을 획득하더라도 언어적 유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발달은 주로 아동기에 이루어지며, 아동 역시 언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며 다양한 정서 상태를 경험하더라도 어휘 습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정서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언어 능력에 대한 중요한 연구들은 주로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Shaffer & Kipp, 2014). 또한, 10세 전후가 되어야 한 가지 이상의 혼합 정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고 이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면서 뚜렷한 정서 발달 단계가 확인된다(Harter & Buddin, 1987). 마찬가지로, 연령 범위별로 근사한 차이가 있어 개인마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발달학자들은 발달단계 중 12세에서 20세까지를 청소년기로 보고 있는데, 특히 생후 초기 12년 동안이 청소년기와 성인기 발달을 준비하는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밝혀졌기 때문에(Shaffer & Kipp, 2014) 이에 기반하여 초등학교 5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령 초기인 1~2학년까지는 자기중심적이고 정서 표현이 솔직하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학령 중기에 해당하는 3학년부터는 자아에 대한 의식이 비교적 분명해지고 자신의 정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고 타인의 정서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면서 정서의 발달 및 변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큰 특징이다(정옥분, 2015).

연구 절차

실험 절차 및 실험에 사용된 도구(지시문, 정서 단어 카드)는 이전 실험과 동일하였다. 실험을 완료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30분 정도였다.

결 과

먼저, 차원 수를 살펴보기 위한 적합도 검증

에서 A+B 집단의 원 스트레스 측정치를 도출하였다. 적합한 스트레스 값을 탐색하기 위한 반복 과정으로 차원의 수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여 살펴본 결과, 최소값을 3, 최대값을 3으로 설정했을 경우에 원 스트레스 측정치가 .02로, .05보다 작게 나타났다. 한편, 스크리 도표에서는 스트레스 값이 1차원에서 2차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2차원에서 3차원로의 감소는 비교적 완만한 수준을 나타내어 초등학생의 정서는 최소 1차원에서 최대 3차원이 도출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살핀 바대로, 초등학생의 정서를 3차원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차원의 해석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실시하였다. 먼저, 다차원척도법을 실시하여 정서 단어의 유사성 자료를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공간에 배열하여 정서의 구성 차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그림 11~그림 13).

그림 11에서 1차원의 한 극은 ‘기쁘다’, ‘만족하다’, ‘사랑하다’, ‘안심하다’, ‘좋아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등이 자리하고 있고, 다른 한 극은 ‘괴롭다’, ‘무섭다’, ‘슬프다’, ‘싫다’, ‘억울하다’, ‘절망하다’, ‘화나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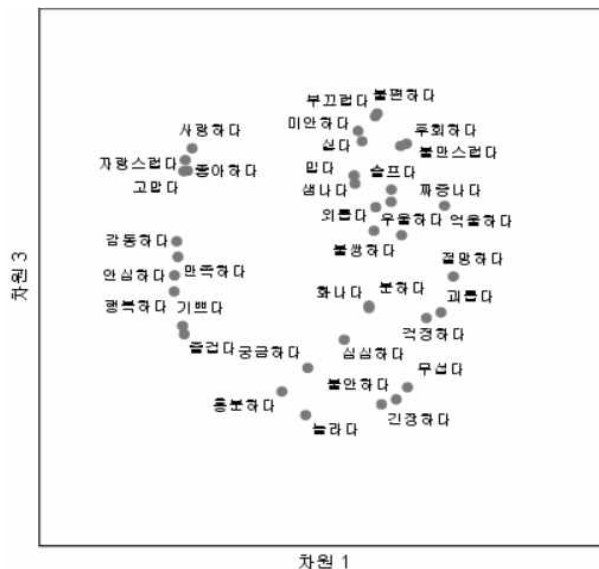


그림 11. 36개 대표 정서 단어의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 1차원(A+B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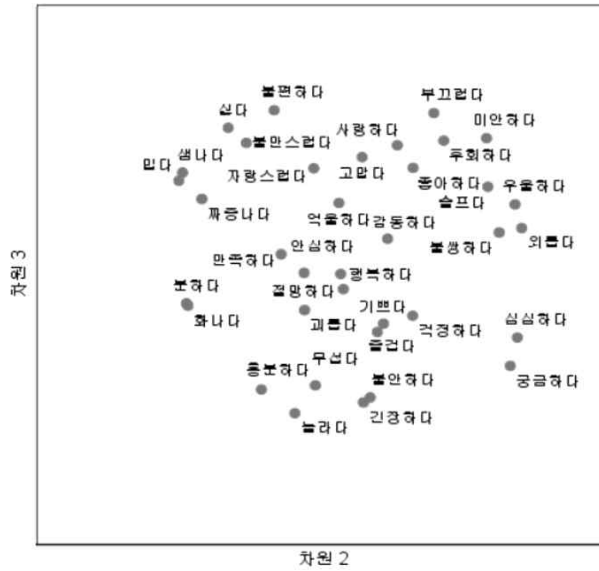


그림 12. 36개 대표 정서 단어의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 2차원(A+B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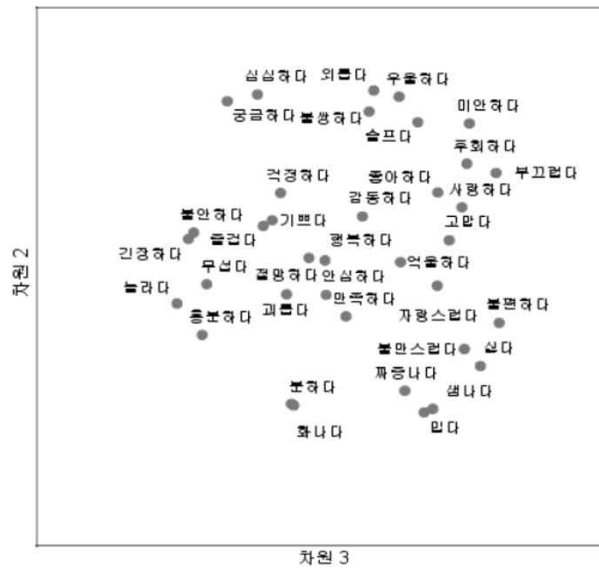


그림 13. 36개 대표 정서 단어의 다차원척도법 분석 결과: 3차원(A+B 집단)

다음으로, 2차원은 ‘만족하다’, ‘밧다’, ‘불만스럽다’, ‘쌔나다’, ‘싫다’, ‘안심하다’, ‘짜증나다’ 등이 한 극을 이루고 있고, 다른 한 극은 ‘궁금하다’, ‘긴장하다’, ‘놀라다’, ‘심심하다’, ‘외롭다’, ‘우울하다’, ‘흥분하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2). 마지막으로, 3차원의 한 극은 ‘걱정하다’, ‘괴롭다’, ‘궁금하다’, ‘기쁘다’, ‘무섭다’, ‘불안하다’, ‘심심하다’ 등이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한

극은 ‘미안하다’, ‘밧다’, ‘불쌍하다’, ‘싫다’, ‘외롭다’, ‘우울하다’, ‘후회하다’ 등이 자리하고 있다(그림 13).

다음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Ward 연결법을 통해 A+B 집단의 덴드로그램을 생성하여 의미가 유사한 정서 단어들 이 각 군집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평균 연결법을 통해 Ward의 연결법으로 군집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각 정서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 3차원 좌표 상에 배치된 정서 단어 위치를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살펴보았다(표 12~표 14).

1차원에서 부적 방향과 정적 방향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1차원의 부적 방향은 ‘감동하다’, ‘고맙다’, ‘기쁘

다’, ‘자랑스럽다’, ‘좋아하다’, ‘즐겁다’의 단어들 이 배치되어 있고, 정적 방향은 ‘괴롭다’, ‘무섭다’, ‘분하다’, ‘억울하다’, ‘절망하다’, ‘화나다’의 단어들 이 자리하고 있으며, 0점을 중심으로 ‘궁금하다’, ‘놀라다’, ‘미안하다’, ‘쌤나다’, ‘심심하다’, ‘흥분하다’가 있다(표 12). 2차원의 부적 방향은 ‘밧다’, ‘쌤나다’, ‘불만스럽다’, ‘불편하다’, ‘분하다’, ‘화나다’의 단어들 이 위치하고 있고, 정적 방향은 ‘심심하다’, ‘궁금하다’, ‘놀라다’, ‘외롭다’, ‘우울하다’, ‘흥분하다’의 단어들 이 나열되어 있다. 나머지 0점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 단어들은 ‘걱정하다’, ‘행복하다’, ‘부끄럽다’, ‘후회하다’, ‘절망하다’, ‘감동하다’의 단어들 이 배치되어 있다(표 13). 3차원의 부적 방향은 ‘미안하다’, ‘부끄럽다’, ‘불쌍하다’, ‘슬프다’, ‘우울하다’, ‘후회하다’의 단어들 이 배열되어 있고,

표 12. 1차원에 대한 정서 단어의 좌표값(A+B 집단)

1차원 부적 방향	정서 단어	1차원 0점 기준	정서 단어	1차원 정적 방향	정서 단어
-0.75	감동하다	-0.05	궁금하다	0.62	억울하다
-0.72	기쁘다	-0.07	놀라다	0.59	괴롭다
-0.72	즐겁다	0.14	심심하다	0.54	화나다
-0.72	고맙다	0.15	미안하다	0.54	분하다
-0.71	자랑스럽다	0.17	쌤나다	0.50	절망하다
-0.71	좋아하다	-0.26	흥분하다	0.43	무섭다

표 13. 2차원에 대한 정서 단어의 좌표값(A+B 집단)

2차원 부적 방향	정서 단어	2차원 0점 기준	정서 단어	2차원 정적 방향	정서 단어
-0.63	밧다	-0.01	걱정하다	0.67	심심하다
-0.63	쌤나다	0.03	행복하다	0.61	궁금하다
-0.56	불만스럽다	-0.03	부끄럽다	0.48	놀라다
-0.48	불편하다	0.03	후회하다	0.44	외롭다
-0.37	분하다	-0.05	절망하다	0.42	우울하다
-0.35	화나다	0.06	감동하다	0.33	흥분하다

표 14. 3차원에 대한 정서 단어의 좌표값(A+B 집단)

3차원 부적 방향	정서 단어	3차원 0점 기준	정서 단어	3차원 정적 방향	정서 단어
-0.59	미안하다	-0.01	억울하다	0.56	걱정하다
-0.57	부끄럽다	-0.02	분하다	0.51	불안하다
-0.54	후회하다	-0.03	화나다	0.47	무섭다
-0.49	불쌍하다	0.03	자랑스럽다	0.42	궁금하다
-0.41	우울하다	0.05	감동하다	0.40	긴장하다
-0.40	슬프다	0.08	짜증나다	0.38	절망하다

정적 방향은 ‘걱정하다’, ‘궁금하다’, ‘긴장하다’, ‘무섭다’, ‘불안하다’, ‘절망하다’의 단어들 위 치하고 있다. 나머지 0점을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단어들은 ‘감동하다’, ‘분하다’, ‘억울하다’, ‘자랑스럽다’, ‘짜증나다’, ‘화나다’의 단어들 이 배치되어 있다(표 14).

이상으로, 초등학생의 정서를 구성하는 차원 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 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차원척도법과 그에 따른 각 차원의 정수 방향에 배치되어 있는 정 서 단어들은 초등학생의 정서가 3차원으로 구성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차원 의 해석 가능성에 있어 ‘활성화-비활성화’ 차원 과 ‘자기 지향-타인 지향’ 차원은 유사성의 특성 을 명확하게 나타낸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 되며, 이는 계층적 군집분석에서도 맥락을 같이 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 에서는 초등학생의 정서는 1차원의 구조로 형성 되어 있으며, 정서의 1차원을 ‘쾌-불쾌’로 명명 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대표 정서 단어에 내재된 차원의 분화를 통하여 정서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생은 ‘쾌-불쾌’의 단일 차원이 도출된 반면, 중학생의

정서는 두 개의 차원이 발견되었으며, 첫 번째 차원을 ‘쾌-불쾌’, 두 번째 차원을 ‘활성화-비활 성화’로 해석하였다. 고등학생의 정서는 세 개의 차원으로, 첫 번째 차원을 ‘쾌-불쾌’, 두 번째 차 원을 ‘활성화-비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을 ‘자기 지향-타인 지향’으로 해석하였다. 이어 성 인의 정서 또한 세 개의 차원으로, 첫 번째 차원 을 ‘쾌-불쾌’, ‘활성화-비활성화’,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을 ‘자기 지향-타인 지향’으로 해석하였다.

서로 다른 연령마다 정서 차원의 수와 내용 이 일치하지 않으나, 그 중 ‘쾌-불쾌’는 모든 연 령에서 가장 일관되게 나타날 만큼 핵심적인 정 서 차원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쾌-불쾌’가 모 든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경험 하는 정서이며, 특별한 학습이 요구되지 않는 원초적 정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모든 정서 경험은 ‘쾌-불쾌’로 나타 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동의 하고 있다(김태용, 안도현, 2011). 한편, 쾌-불쾌 에 뒤이어 두 번째로 발견되는 차원은 ‘활성화- 비활성화’로 측정되며(Russell & Barrett, 1999), 세 번째 차원에 관해서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연구 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마찬가지로, 정서의 차원 이론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지지되는 차원은 ‘쾌- 불쾌’이며, 두 번째로 발견되는 차원은 ‘활성화- 비활성화’ 차원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범문화적 으로 나타나는 정서 구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혜신, 김진관, 오경자, 1998). 특히, 초등학생

과 중학생의 경우, 차원을 구체화하는 배치된 단어들의 유사성 및 상대적인 관계가 불분명하여 어떤 특정 차원 전체를 잘 대변할 수 있는지가 다소 모호하여 차원의 해석이 매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령에 따른 정서 차원의 수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닌, 내적 상태로서의 정서가 각 연령마다 고유의 특징을 가지는 새로운 정서 차원으로 도출되는지를 밝히고 그 양상을 통해 정서의 발달을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차원 간의 상대적 관계와 그 특성을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독립적인 차원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는 정서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설명하는 타당하고 신뢰로운 정서 차원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Rosch, 1973; Shaver, Schwartz, Kirson & O'Connor, 1987)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서의 위계 구조를 제시하면서, 만약 차원이 단순히 어떤 정서에 대한 지식수준이 반영된 것이라면, 차원을 결정짓는 정서 단어의 배열이 고유의 범주를 구성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각 차원의 조합으로 형성되는 또 다른 차원이 발견될 수 없으므로, 수평적 차원을 비롯한 수직적 차원 역시 형성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혜진과 김영근(2020)이 정서 단어를 위계적으로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표 정서 단어를 사용한 바, 개인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관되고 안정적인 정서 차원을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연구들은 대학생으로 한정된 참가자들에 의해 실시되었기 때문에 성인 이외의 다른 연령 집단의 정서 차원을 살펴본 연구를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 차원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그 경향성을 살펴보는 일은 불가능하므로, 정서 발달의 다양한 요인과 차원의 의미에 근거한 절충적인 관점을 취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정서가 단순한

내적 상태가 아닌 전반적인 정서의 속성과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개념화하고 구조화 할 수 있듯이, 정서 발달은 성숙과 환경 요인에 의한 경험이 상호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Efklides & Volet, 2005).

정서의 발달을 살펴보는 것은 특정 연령에 따라 출현하는 다양한 정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서의 유발 원인과 기능 및 표현 방식에 관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기본 정서의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밝혀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서 단어 분류에 따라 도출되는 차원은 개인의 경험이나 학습 수준 등의 영향을 받는 자기 보고의 결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서를 기술하는 단어는 관찰하기 어려운 개인의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일반적인 명사 단어와 달리, 학습을 통해서 개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김민화 외, 2003). 정서와 인지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작용하는 체계이다. 어떤 것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인지적 추론보다 정서가 우선시된다(Zajonc, 1980).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정서는 인지 이전에 의식된다. 둘째, 정서는 인지 비해 더 많은 행동을 설명한다. 셋째, 정서는 노력이 필요하거나 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 넷째, 정서는 인지의 중재 없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할 수 있다(Parrot & Sabini, 1989).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유아기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여 성인기까지의 정서 발달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정서가 어떻게 형성되고, 언제부터 분화되어 발달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Watson과 Rayner(1920) 등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신생아를 비롯한 영아와 아동은 출생 당시 기쁨, 슬픔, 공포, 분노와 같은 기본 정서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정서 표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경험할 정도로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Sroufe, 1996) 출생 후 3개월 이전까지의 정서는 아직 미분화된 상태로 외부 자극에 반응

할 수 있는 흥분 상태에 있으며, 성인의 수준으로 정서를 경험하고 인식하며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정서는 점차 성숙의 과정 동안 생리적 기제와 환경적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정서로 분화되면서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아동 후기에 이르면서 사회적 환경과 새로운 경험의 범위가 훨씬 확장되어(양경수, 2006) 경험과 학습의 기회가 증가하고 인지 능력이 발달한 결과로, 질적으로 새로운 정서 경험과 표현을 한다. 그러나 인지 능력은 10대 후반이 될 때까지 미성숙한 상태에 있어(Sowell, Thompson, Tessner, & Toga, 2001) 아직 상이한 정서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Widen & Russell, 2008). 이는 정서 발달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인지를 배제하고서는 정서가 존재하거나 완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정서 발달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반영한다(Kagan, 2007). 따라서 이 시기에 나타나는 정서는 기쁨, 분노, 공포, 애정, 질투, 슬픔 등으로 아동 전기 때와 동일하다(Bossard, 1953). 이러한 사실은 아동기의 정서가 전 아동기를 통틀어 오직 좋고 나쁨의 차원에서 비교하고 구분하는 단순한 내적 상태임을 보여준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정서의 변별 수준이 낮음에 따라 차원 상에 배치된 정서의 분포가 불분명하고 넓은 양상을 나타내므로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신영숙, 정현숙, 2007). 이와 같은 맥락으로 문혜신 등(1998)에 따르면, 아동은 '쾌-불쾌'의 차원으로 정서를 개념화하는 특성을 보이며,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설명력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 단어에 대한 아동의 부정확한 판단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닌, 하나의 정서 상태와 또 다른 정서 상태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Denham & Couchoud, 1990). 또한, 아동의 정서는 '쾌-불쾌' 차원에 의존하여 정교화되면서 성인과 유사한 차원으로 분화된다(신영숙,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초등학생의 정서를 '쾌-불쾌'로 구성된 단일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에서는 뇌의 신경 전달 체계가 정서와 각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쾌-불쾌'와 '행동적 활성화'를 결정하며, 이러한 정서와 각성의 정도에 따라 뇌의 활동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하였다(Posner et al., 2009). Springer와 Deutsch(1981)는 좌반구가 기쁨이나 행복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처리하고, 우반구는 슬픔이나 공포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과학적 근거에 따라 뇌신경계가 인간의 정서를 형성하는 데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정서는 고유한 뇌신경 회로와 심리적 기제 및 기능을 가지고 있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단위이자, 모든 인간이 삶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공유하는 보편적인 심리적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Panksepp, 2004). 따라서 인간의 '쾌-불쾌'는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전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정서 차원으로, 뒤이어 제시하는 다른 연령 집단에서도 발견되는 기본적인 보편적인 정서 상태로 해석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시작부터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로 여기는 것(Hall, 1904)은 그만큼 이 시기에 정서의 변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 전기는 정서의 강도가 크고 긍정적, 부정적 정서의 출현이 잦은 빈도로 동시에 나타나 급격한 정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후 청소년기 후기에 들어서면서 성인의 일반적 수준을 능가할 만큼 신체적·성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인지 능력의 발달이 정점에 도달하여 불안정한 정서 또한 분화되고 확대되면서 안정화되어간다. 일반적으로 인간 발달 단계의 연령적 기준으로 볼 때, 청소년 후기는 고등학생과 성인 초기의 성년을 포함하여 일컫는 시기이다. 이들은 인지 발달 단계 중 형식적 조작기의 발달로 논리적·체계적·연역적인 사고가 가능해져 이전 단계에서 다루지 못했던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과 타인

혹은 타인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내면적 과정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자아를 확립해나가며, 유연한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을 획득하고자 한다. 특히, 고등학생은 본격적인 진학 준비와 관련하여 학업과 진로를 위한 관리와 탐색 작업이 필요함과 동시에 자신이 처한 위치와 그 상황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며 스스로에 대해 탐색한다. 물론 형식적 조작기의 발달은 일찍이 청소년 전기에 시작되기는 하나, 완전한 형식적 조작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 형식적 조작 사고는 이 시기의 모든 이들이 획득하는 능력이 아닐뿐더러 만일 형식적 조작 사고가 가능하더라도 그 사용이 빈번하지 않다. 대신 이들이 급진적인 인지 능력의 발달과 동시에 다양한 경험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Piaget, 1972). 이러한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비록 아동기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계속되는 과정이기는 하나, 청소년 후기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청소년 전기는 신체의 급격한 변화와 성적 성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교우 관계를 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청소년 후기에 비해 자아정체감 확립에 관심이 덜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정서는 전 시기를 통틀어 대체로 흥분 상태에 있고 기복이 심한 시기로, 강렬하고 쉽게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쾌-불쾌'의 단일 차원이던 아동기의 정서가 청소년 전기에 이르러 '쾌-불쾌'와 '활성화-비활성화'의 차원으로 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활성화-비활성화'가 정교화된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차원으로서, 청소년은 아동에 비해 자신의 정서 변화에 민감하고, 이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획득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인지 능력은 청소년 후기에 형식적 조작 사고를 가능케 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에 영향을 미쳐(김정희 외, 1999) '자기 지향-타인 지향' 차

원의 정서 상태로 분화된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인 또한 세 번째 정서 차원으로 '자기 지향-타인 지향'이 도출되었다. 이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더 넓은 정서 발달로서의 함축적 의미를 고려한다. 즉, 연령과 생리적·인지적 능력을 비롯하여 심리적, 사회적 성숙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성인기 발달은 개인과 사회 간의 긴장이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담과 관련이 있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Keniston, 1975). 인간은 연령의 증가로 인지 능력에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며, 정서적 경험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Inhelder & Piaget, 1958). 이러한 시간적 경과에 따른 정서적 변화는 학업과 진로, 졸업, 취업, 이직 및 은퇴 등과 같이 삶의 여러 사건의 영향을 설명하는 공통적인 작용 원리를 나타낼 수 있다. 성인기에는 이러한 삶의 맥락에서 미래 지향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변화는 유능한 성인이 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발달 과업이자, 정서의 발달이 충실화되어 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기존의 연구들에서 '개인적 통제', '공격성 수준', '지배-비지배' 등(Averill, 1975; Bradley & Lang, 1999)을 정서 구조의 3차원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각 언어는 문화와 사회적 제약 및 영향에 의해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문화마다 개인이 처한 상황, 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다르고 언어가 지닌 가치가 모두 동일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Brandt & Boucher, 1986). 본 연구에서 도출된 3차원은 이준웅 등(2008)의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차원으로서, 이들은 정서의 초점이 자신에게 있는지 혹은 타인에게 있는지에 따라 서로 구분되는 정서 지향적인 차원, 즉, '자기 중심-타인 중심'이라고 해석하였으며, 이만영과 이홍철(1990)은 '내부 지향-외부 지향'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겁나다’, ‘두렵다’, ‘불안하다’, ‘서글프다’, ‘아쉽다’, ‘초조하다’ 등과 같이 정서 유발 및 반응 지향성이 내부로 향해 있다고 하여 한 극을 ‘자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나머지 한 극은 ‘경멸하다’, ‘괘씸하다’, ‘불만스럽다’, ‘불쾌하다’, ‘싫다’, ‘질투하다’ 등과 같이 배치된 단어가 외부 환경에 대한 자각 혹은 행동의 활성화를 나타낸다고 보고 ‘타인’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정서의 두 번째 차원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활성화’ 차원 대신 ‘자기 초점-타인 초점’이 발견된 민경환과 구자숙(2002), 박인조와 민경환(2005)의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보여준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정서 단어, 측정 방법, 분석 기법 등의 차이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단지 차원을 명명하는 데 있어 표현의 차이일 뿐, 결국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주로 단어의 의미를 통해 발견되는 내적 상태의 정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척도법, 군집분석, 차원 공간 내에서의 정서 단어의 좌표값 등이 사용되는데(박수진, 장준익, 정찬섭, 1998), 이러한 분석 결과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차원과 두 번째 차원의 확장된 차원으로써, 세 번째 차원을 ‘자기 지향-타인 지향’으로 명명하는 것이 자료에 가장 가까운 해석이라고 판단되었다. 이는 정서 차원의 의미적 구분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고 분류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제시하는 정서 차원의 순서 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원을 구성하는 정서적 의미와 그 관계가 내용적으로 일치하여 설득력을 지니므로, 결국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어떤 특정 차원이 맞고 틀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각 정서 차원마다 정서의 본질을 설명하는 다양한 측면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 차원을 밝히고자 하는 여러 연구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쾌-불쾌’와 ‘활성화’가 본 연구에서도 도출되었으며,

불일치를 보이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은 세 번째 차원 또한 ‘자기 지향-타인 지향’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은 정서 구조의 다양성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정서 발달을 설명하는 연구자들의 의견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대로 정서는 출생 시부터 존재하고, 성장해가면서 점차 분화된다. 그리고 분화된 모든 정서 차원은 통합되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표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쾌-불쾌’, ‘활성화-비활성화’, ‘자기 지향-타인 지향’으로 구성된 성인의 정서는 전 생애에 걸친 정서 발달의 누적된 결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가 생리적·인지적·행동적 요인을 동반한 총체적인 내적 상태의 변화에 따라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정서 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차원의 분화를 통해서 전달한다는 것이다. 특정 뇌 영역이 정서의 발생에 활성화되어 정서의 발달에 작용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기제가 되고, 좀 더 복잡한 인지 능력과 다양한 삶의 경험 및 환경 범위가 확대되면서 점차 분화된 정서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 뇌에는 정서를 구성하는 신경 전달 체계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전달되는 정서는 삶의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맞추어가는 적응적인 상태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역할과 행동을 수행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Plutchik, 2003). 특히, 본 연구는 정서 발달의 기저가 되는 차원의 분화를 통해 정서 발달을 살펴본 것으로, 정서를 일으키는 상황의 맥락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를 강조하는 바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진관 등(1999)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처럼 발달 단계가 낮을수록 정서 개념의 분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문혜신 등(1998)과 Ellsworth와 Scherer(2003) 또한 정서 차원의 분화 즉, 정서의 발달은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내적으로 일어나는 인지 능력의 변화라고 강조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의 관점을 지지한다.

이처럼 정서 발달은 다양한 요인에 의존된 과정으로, 초기에는 정서를 단순히 좋은 상태와 나쁜 상태로 구분하는 '쾌-불쾌'의 차원을 나타내지만 미분화된 정서는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고 세상에 대한 숙고적인 사색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분화된 정서로 발달하게 되고 안정되어 간다. 이는 '쾌-불쾌'이던 단일 정서 차원이 점차 '활성화-비활성화'와 '자기 지향-타인 지향'의 다차원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정서 차원의 분화로 개인의 정서 발달을 예측하고, 이는 차원 간의 적절한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그동안의 정서 연구는 경험적 탐색에 의거한 수행 과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이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탐색한 성인의 정서 차원에 대한 결과는 향후에 수행될 정서 연구에 이론적·경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내적 상태로서의 성인의 정서가 어떻게 고유하고 독특한 특징을 가지며 새로운 정서 차원으로 탐색되는지를 다양한 요인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측면에서 집약되고 설명 가능한 정서 구조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정서 차원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성별에 대한 분석을 다루지 않았다. 성별의 미묘한 차이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성별과 정서적 기초에 대한 추후 연구를 발전시킨다면 정서의 범주적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한국인의 정서 차원을 살펴본 것으로, 이를 다른 문화권의 대상과 비교해본다면 정서와 문화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풍부하고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물론, 한국인의 정서 차원을 살펴보았다는 것은 그 자체

로도 가치가 있다. 그러나 문화적 범주가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정서적 인식과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서의 문화보편성 혹은 문화특수성에 따른 정서와 문화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저자 소개

장혜진은 인제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및 상담심리치료학과 강사로 재직 중이다. 정서심리학과 발달심리학이 주 연구 분야이며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김영근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심리학회 공인 상담심리전문가로서, 정서심리와 상담이 주 연구 분야이다. 특히, 기초심리학으로써의 정서심리학과 응용심리학으로써의 상담심리학의 연결고리를 통해 연구 분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다.

## 참고문헌

- 김광수, 한미라, 박병기 (2013). 학업정서의 다차원 구조 탐색. *교육심리연구*, 27(4), 961-987.
- 김민화, 곽금주, 성현란, 심희옥, 장유경 (2003). 영아기 정서단어의 습득에서 기질과 양육태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39-55.
- 김송이, 엄진섭, 노은여, 유성은 (2013). 개별정서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63-89.
- 김영아, 김진관, 박수경, 오경자 (1997). 정서관련 어휘 분석을 통한 내적 상태의 차원 연구.



- 연차학술대회논문집. 1997, 209-214.
- 김정희, 남기덕, 박영호, 송명자, 송인섭, 심웅철, 윤가현, 윤영화, 이철원, 이현진 (1999). 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지혜, 황민철, 김용우, 임좌상 (2009). 다차원 척도 분석법을 통한 Grooming 사용자의 터치폰 감성 GUI 디자인에 대한 연구. 감성과학, 12(4), 501-510.
- 김진관, 문혜신, 오경자 (1999). 감성 개념 이차원 구조의 안정성. 감성과학, 2(1), 43-52.
- 김태용, 안도현 (2011). 한국어 감정표현 어휘들의 극성-각성 좌표화를 통한 해독격차 분석 및 수렴화 프로세스 제안. 한국언론학보, 55(6), 436-465.
- 김혜리, 손정우, 엄진섭, 정명숙, 박민, 박영옥, 천영운, 문은옥 (2012). 얼굴표정 자극에 대한 아동의 안면모방과 정서공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24(4), 433-452.
- 문혜신, 김진관, 오경자 (1998). 감성개념 차원구조의 특징에 관한 연구-아동청소년 및 임상집단을 중심으로. 한국감성과학회 추계학술대회, 1998, 59-64.
- 민경환, 구자숙 (2002). 한국어 정서단어의 구조 분석과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정서의 내용 분석. 성곡논총, 33(3), 287-351.
- 박광배 (2000). 다차원척도법. 서울: 교육과학사.
- 박수진, 장준익, 정찬섭 (1998). 범주 - 차원의 혼합을 통한 감성 조사의 단순화 전략 - 직물패턴의 감성 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감성과학회 춘계학술대회, 1998, 230-236.
- 박인조, 민경환 (2005).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09-129.
- 박지선 (2014). 발달적 관점에서 본 아동, 청소년의 정서조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1-21.
- 신영숙 (2008). 정서의 이차원 모델에서 유아들의 정서발달연구. 아동교육, 17(3), 5-13.
- 신영숙, 정현숙 (2007). 정서의 이차원 구조에서 유아의 얼굴표정 해석. 인지과학, 18(1), 57-68.
- 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3). 정서의 구조: 한국어 정서단어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7(1), 107-123.
- 양경수 (2006). 유아의 지능과 창의성이 대인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5(4), 187-196.
- 이만영, 이흥철 (1990). 형용사 서술 의미의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2, 118-138.
- 이수미, 조경자, 김혜리 (2012). 얼굴표정을 통한 정서읽기 능력의 발달적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3), 55-72.
- 이수상 (2016). 한글 감정단어의 의미적 관계와 범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51-70.
- 이수정, 유재호 (2000). 정서의 잠재적 차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39-154.
- 이준웅, 송현주, 나은경, 김현석 (2008). 정서 단어 분류를 통한 정서의 구성 차원 및 위계적 범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2(1), 85-116.
- 이현주, 채유정 (2014).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사회·정서, 생애목표의 수준 및 구조적 관계에서의 성차. 한국청소년연구, 25(2), 173-207.
- 장혜진, 김영근 (2020). 정서 발달 과정에서 정서의 차원 도출을 위한 대표 정서 단어 도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4(3), 29-58.
- 정옥분 (2015).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은영, 임정하 (2014). 대학생의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5(4), 185-210.
- 최성환, 최해연 (2014). 청소년 정서조절의 이해: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4), 833-852.

- 한미라, 김광수, 박병기 (2015). 학업정서 어휘의 3차원 구형모형 탐색. *교육심리연구*, 29(2), 303-330.
- 한의원, 차형태 (2017). 러셀 모델의 확장을 통한 감정차원 모델링 방법 연구. *감성과학*, 20(1), 75-82.
- 허명희, 양경숙 (2001). SPSS 다변량자료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홍영지, 남예은, 이윤희 (2016). 정서가, 각성가 및 구체성 평정을 통한 한국어 정서단어 목록 개발. *인지과학*, 27(3), 377-406.
- 홍창희 (2004). 한국 정서경험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771-787.
- 황매향 (2008). 한국인의 정서적 발달과업 탐색: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5(3), 163-189.
- Anglin, J. M. (1993). Vocabulary development: A morphological analysi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8(10, Serial No. 238), 1-166. doi:10.2307/1166112
- Averill, J. R. (1975). A semantic atlas of emotional concepts. *JSAS Catalogue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5, 330.
- Borgen, F. H., & Barnett, D. C. (1987). Applying cluster analysis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456-468. doi:10.1037/0022-0167.34.4.456
- Bossard, J. H. S. (1953). *Parent and child: Studies in family behavior*.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radley, M. M., & Lang, P. J. (1999). Affective norms for English words (ANEW): Instruction manual and affective ratings (Vol. 30, No. 1, pp. 25-36). *Technical Report C-1, The Center for Research in Psychophysiology*, University of Florida.
- Brandt, M. E., & Boucher, J. D. (1986). Concepts of depression in emotion lexicons of eight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0, 321-346. doi.org/10.1016/0147-1767(86)90016-7
- Bridges, K. M. (1930). A genetic theory of the emotion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37, 514-527.
- Bridges, K. M. (1932). Emotional development in early infancy. *Child Development*, 3, 324-341. doi:10.2307/1125359
- Bush, L. E. (1972). Empirical selection of adjectives denoting feelings. *JSAS Catalogue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2, 67.
- Carroll, J. M., & Russell, J. A. (1996). Do facial expressions signal specific emotions? Judging emotion from the face in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205-218. doi:10.1037/0022-3514.70.2.205
- Carstensen, L. L., Isaacowitz, D. M., & Charles, S. T. (1999). Taking time seriously: A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4, 165-181. doi:10.1037/0003-066X.54.3.165
- Darwin, C. (1872).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 London: J. Murray.
- Denham, S. A., & Couchoud, E. A. (1990). Young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Study Journal*, 20, 171-192.
- Efklides, A., & Volet, S. (2005). Emotional experiences during learning: Multiple, situated and dynamic. *Learning and Instruction*, 15, 377-380. doi:10.1016/j.learninstruc.2005.07.006
- Ekman, P. (1973). Cross-cultural studies of facial expression. In P. Ekman (Ed.), *Darwin and facial expression: A century of research in review* (pp. 169-222). New York, NY: Academic Press.
- Ellsworth, P. C., & Scherer, K. R. (2003). *Appraisal processes in emotion*. In R. J. Davidson, H. Goldsmith, & K. R. Scherer (Eds.),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s* (pp. 572-59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 G. S. (1904). *Adolescence: Its Psychology and Its Relations to Physiology, Anthropology, Sociology, Sex,*

- Crime, Religion, and Education*. New York: Appleton.
- Harter, S., & Buddin, B. J. (1987).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simultaneity of two emotions: A five-stage developmental acquisition sequ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388-399.
- Heider, K. G. (1991). *Landscapes of emotion: Mapping three cultures of emotion in Indonesi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rlock, E. B. (1949). *Adolescent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 Inhelder, B., & Piaget, J. (1958). *The growth of logical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n essay on the construction of formal operational structures*. New York: Basic Books.
- Izard, C. E. (1972). *Patterns of emotion: A new analysis of anxiety and depression*. New York, NY: Academic Press.
- James, W. (195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Vol. 3*. New York, NY: Dover Publications.
- Kagan, J. (2007). *What is emotion?: History, measures, and meanings*.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 Kalat, J., & Shiota, M. (2005). *Emotion*. Boston: Thomson Learning(Thomson Wadsworth).
- Keniston, K. (1975). *Prologue: Youth as a stage of life*. In R. J. Havighurst & P. H. Dreyer (Eds.), *The Seventy-Fourth Year 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itayama, S., Markus, H. R., & Kurokawa, M. (2000). Culture, emotion, and well-being: Good feeling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gnition and emotion, 14*, 93-124. doi.org/10.1080/026999300379003
- Kruskal, J. B. (1964). Multidimensional scaling by optimizing goodness of fit to a nonmetric hypothesis. *Psychometrika, 29*, 1-27.
- Lewis, M., Sullivan, M. W., Stanger, C., & Weiss, M. (1989). Self development and self-conscious emotions. *Child Development, 60*, 146-156. doi:10.2307/1131080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 doi.org/10.1037/0033-295X.98.2.224
- Mauss, I. B., & Robinson, M. D. (2009). Measures of emotion: A review. *Cognition and Emotion, 23*, 209-237. doi:10.1080/02699930802204677
- McLaughlin, K. A., Hatzenbuehler, M. L., Mennin, D. S., & Nolen-Hoeksema, S. (2011). Emotion dysregulation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A prospective stud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9*, 544-554. doi:10.1016/j.brat.2011.06.003
- Osgood, C. E., Suci, G. J., & Tannenbaum, P.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Illinoi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Panksepp, J. (2004). *Affective neuroscience: The foundations of human and animal emo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rrott, W. G., & Sabini, J. (1989). On the "emotional" qualities of certain types of cognition: A reply to arguments for the independence of cognition and affec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3*, 49-65.
- Paulson, B. L., Truscott, D., & Stuart, J. (1999). Clients' perceptions of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317-324. doi:10.1037/0022-0167.46.3.317
- Piaget, J. (1972). Intellectual evolution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Human Development, 15*, 1-12. doi.org/10.1159/000271225
- Plutchik, R. (1980). *Emotion: A psychoevolutionary synthesis*. New York, NY: Harper & Row.
- Plutchik, R. (2003). *Emotions and life: Perspectives from psychology, biology, and evolu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osner, J., Russell, J. A., Gerber, A., Gorman, D.,

- Colibazzi, T., Yu, S., & Peterson, B. S. (2009). The neurophysiological bases of emotion: An fMRI study of the affective circumplex using emotion denoting words. *Human Brain Mapping, 30*, 883-895. doi:10.1002/hbm.20553
- Rosch, E. H. (1973). *On the internal structure of perceptual and semantic categories*. In T. E. Moore (Ed.), *Cognitive development and the acquisition of language* (pp. 111-144). New York: Academic Press.
- Russell, J. A. (1978). Evidence of convergent validity on the dimensions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152-1168. doi:10.1037/0022-3514.36.10.1152
- Russell, J. A. (1980). A circumplex model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61-1178. doi:10.1037/h0077714
- Russell, J. A., & Barrett, L. F. (1999). Core affect, prototypical emotional episodes, and other things called emotion: Dissecting the elepha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805-819. doi:10.1037/0022-3514.76.5.805
- Russell, J. A., & Ridgeway, D. (1983). Dimensions underlying children's emotion concepts. *Developmental Psychology, 19*, 795-804. doi:10.1037/0012-1649.19.6.795
- Schlosberg, H. (1954). Three dimensions of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61*, 81-88. doi:10.1037/h0054570
- Shaffer, D. R., & Kipp, K. (2014).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9th ed.). Belmont, CA: Wadsworth.
- Shaver, P., Schwartz, J., Kirson, D., & O'Connor, C. (1987). Emotion knowledge: further exploration of a prototype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061-1086.
- Sroufe, L. A. (1996). *Emotional development: The organization of emotional life in the early year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well, E. R., Thompson, P. M., Holmes, C. J., Jernigan, T. L., & Toga, A. W. (1999). In vivo evidence for post-adolescent brain maturation in frontal and striatal regions. *Nature Neuroscience, 2*, 859-861. doi:10.1523/JNEUROSCI.21-22-08819.2001
- Springer, S. P., & Deutsch, G. (1981). *brain, right brain*. New York: Freeman.
- Sroufe, L. A. (1979).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J. D. Osofsky (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pp.149-203). New York: Wiley.
- Watson, J. B., & Rayner, R. (1920). Conditioned emotional reac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3*, 1-14. doi:10.1037/h0069608
- Widen, S. C., & Russell, J. A. (2008). Children acquire emotion categories gradually. *Cognitive Development, 23*, 291-312.
- Wundt, W. M. (1907). Über Ausfrageexperimente und über die Methoden zur Psychologie des Denkens. *Psychologische Studien 3*, 301-360.
- Wundt, W. M. (1977). *Lectures on human and animal psychology*. Washington, D.C: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Original work published in German in 1907).
- Zajonc, R. B. (1980).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 151-175.

1 차원고접수 : 2020. 12. 17.  
수정원고접수 : 2021. 02. 15.  
최종게재결정 : 2021. 03. 14.

## Emotional Development in the Differentiation of the Emotional Dimension

Hyejin Jang

Youngkeun Kim

Inj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al research is to classifying the representative emotion words based on similarity and investigating the differentiation patterns of emotional dimensions inherited in the words so as to investigate the dimensions. 24 elementary school students, 24 middle school students and 24 high school students, 24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classifying the representative emotion words based on similarity and investigating the differentiation patterns of emotional dimensions inherited in the words so as to investigate the dimensions. As a result, the emotional dimension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nsisted of 1 dimension, which was called 'pleasure-displeasure.' The middle school students' emotions had 2 dimensions: first was named 'pleasure-displeasure,' the second as 'activation-inactivation third as 'self-orientation and other-orientation.' Lastly, the high school students' emotions comprised 3 dimensions: the first was called 'pleasure-displeasure,' the second 'activation-inactivation' and the third 'self-orientation and other-orientation,' which match with the adults' 3-dimension emotional structure. To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in that the interaction among various factors was revealed by investigating emotional development through differentiation of the dimensions inherent in emotion words.

*Key words* : emotion, emotional words, emotional dimensions, emotion differentiation, emotional development